

유교문화 현대화를 위한 향교·서원 조례제정 및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일시 · 장소 _ 2013. 5.13(월) 14:00 / 과천시민회관 2층 강당

주 최 _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속의 경기도

주 관 _ 과 천 향 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기도교육청

후 원 _ (사)한국서원연합회, 경기도향교재단, 경기도유도회본부, 유교신문사

유교문화 현대화를 위한 향교·서원
조례제정 및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정 책 토 론 회

일시 : 2013년 5월 13일 14:00 ~ 17:00

장소 : 과천향교 2층 강당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경기도

주관 : 과천향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 경기문화재단

후원 : (사)한국서원연합회, 경기도향교재단, 경기도유도회본부,
유교신문사

목 차

[기조발표]

서원·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정옥자	1
-------------------------------	---

[발 표]

우리 시대 유교는 왜 필요한가? / 강진갑	13
유교 사상의 현대적 해석과 적용 / 최정준	21
향교·서원의 현황과 현대적 활용 / 박성진	27
향교·서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방안 / 윤유석	45

[토 론]

한국의 유교문화와 다문화 한국사회, 해외 한국문화원 / 임영상	61
향교서원 조례제정 및 운영방안에 관하여 / 박경환	64
「유교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박석홍	67
고양향교의 운영 사례를 통한 정책 제언 / 선호술	72

[기조발표]

서원·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정 옥 자(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1. 문제의 제기

조선왕조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문화국가였다. 무력보다 지식과 학문을 존중하고 평화와 안정을 최고 가치로 삼은 자급자족하는 농경사회였다. 그 방향성은 문치주의(文治主義)로 요약된다. 그 사회를 이끌어간 선비는 지식생산자였을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핵심세력이었으니 사기(士氣)는 국가의 원기(元氣)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의리와 명분을 핵심으로 하는 선비정신은 선비들의 가치이자 조선왕조가 추구하던 당대의 공동가치였고 선비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지침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서세동점으로 동양 사회가 제국주의에 편입되고 전 세계가 제국주의적 세계관으로 재편되면서 선비정신은 평가 절하되었다. 식민사관으로 우리 역사와 전통이 왜곡되는 것과 동궐을 그리면서 선비정신도 폐기처분되다시피 하였다. 그 자리에는 부국강병(富國強兵)의 논리가 들어섰던 것이다.

누구를 위한 부국(富國)이며 무엇을 위한 강병(強兵)인지 따져볼 겨를도 없이 부국강병의 가치관은 당연하게 받아 들여졌고 그것은 전 세계를 풍미하는 최고가치가 되었다. 약육강식하는 정글의 논리가 당연시되면서 국가 간에는 물론이려니와 개인대 개인까지 모든 관계는 투쟁의 관계로 인식되었다.

우리는 20세기 제국주의에 편승한 이웃나라 일본에 의한 망국과 6.25전쟁, 그 후 온 국민이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 경제발전은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민주화도 이루어냈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필요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고품격사회로 환골탈태해야하고 그것은 정신문화를 고양시켜야만 가능한 일이다. 스스로 품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당면과제에 직면하였다.

21세기 우리는 서구모방의 긴 여행을 끝내고 우리의 역사전통에서 법고창신(法古創新: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의 길을 열어야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

법고창신은 18세기 선각자 박지원(1737-1805)이 설파한 말이다. 그가 경전의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을 몰라서 이러한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옛것을 익히고 나아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이지신’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이 말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의도가 감지된다. 또한 온고이지신이 옛것을 알아야 새로운 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의미라면 법고창신은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박지원은 조선 문화의 전성기(18세기)에서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점을 예측한 선각자답게 이 말을 문장론을 빌려 예시한 것이다. 그는 제자 박제가의 문집인 초정집의 서문에서

아! 법고자(法古者: 옛것을 본받는 자)는 니적(泥跡: 옛 자취에서 때 묻음)의 병폐가 있고 창신자(創新者: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자)는 불경(不經: 상도에서 어긋남)의 걱정이 있다. 법고하되 변화를 알고 창신하되 전거에 능하면 지금의 글이 오히려 옛날의 글이다.

(噫 法古者病泥跡 創新者患不經 苟能法古而知變 創新而能典 今之文猶古之文也 燕巖集 권1 楚亭集序)

라고 하여 옛것에 매달리면 때 묻을 염려가 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다 보면 근거가 없어 위험하다고 갈파하였다. 조선사회의 전환기에 이러한 발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1894년 갑오경장으로 조선사회가 서구화되는 시점에서 또 하나의 변신으로 나타났으니 구본신참(舊本新參)의 논리이다. 옛것을 근본으로 하여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옛것이란 조선의 전통적인 문물이고

새로운 것은 서구문물을 일컬고 있다. 이는 대한제국기의 방향성이 되었으니 서구문화를 참고하겠다는 정도의 함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삼자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니 모두 새로움을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것을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점과 양자의 균형 잡힌 조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쪽으로 편벽되어 균형이 깨어지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모색은 주체적인 입장에 서서 진지한 고민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쉽게 모방을 일삼아서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그 경제력에 어울리는 만큼의 국가적 품격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선진사회진입은 경제력만으로 되지 못한다. 국민 모두 품위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더구나 세계는 바야흐로 제국주의를 청산하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시대가 가고 다가오는 평화의 미래사회에 평화와 안정을 최고 가치로 하던 붓의 나라이자 선비의 나라이던 조선왕조의 지식기반 문화대국로서의 전통이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

2. 조선시대 유교지성인 선비

서원과 향교에서 교육하여 길러내고자 한 인간형의 전형을 선비로 규정할 수 있다. 선비(士)는 오늘날의 왜소한 지식인과 곧잘 비교된다. 특히 깨끗한 지조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워 않던 강인한 기개, 옳은 일을 위해서는 사약 등 죽음도 불사하던 불요불굴의 정신력, 항상 깨어 있는 청정한 마음가짐으로 특징 지워진 선비상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 현대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지식인들이 보여 주었던 체질적 한계와 현실 타협적 처신은 전통시대 지식인인 선비와 비교되면서 선비정신에 대한 재조명이 요청되고 있다.

조선왕조는 성리학을 국학으로 삼고 그 이념을 국시로 삼은 유교국가다. 조선

초부터 문치주의(文治主義)를 표방하고 지식에 기반을 둔 문화국가를 지향하였다. 바로 그러한 국가를 만들어간 대표적 지식인이 성리학을 주 전공으로 하여 그 이념을 실천한 선비(士)였고 선비의 복수개념이 사림이다. 조선시대 선비는 신분적으로는 양인(良人)이고 경제적으로는 농촌 지방의 중소지주층 출신이 주류이다. 선비는 조선시대를 이끌어간 주역이었다.

문치주의는 무력이 아니라 글로써 하는 정치이고 선비는 학문적 성취를 기초로 정치현장에 출사하여 대부가 되어 논리로서 국민을 설득하고 봉사하는 사대부(士大夫)가 되는 것이 최종목표였다. 즉 선비로서 수기(修己)하고 대부가 되어서는 치인(治人)하여 수기치인(修己治人)을 근본으로 삼아 학자관료인 사대부(士大夫)가 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였다.

선비의 수기는 학문도야와 인격수양을 함께 하는 것이다. 지식을 아무리 축적한들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는 곤란하고 사람됨은 좋지만 능력이 없어서도 안 되는 만큼 능력과 인격을 함께 갖춘 인간형을 추구했던 것이다. 선비의 치인은 남을 지배한다거나 통치한다는 권력개념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키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군자가 되어 백성(民)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봉사행위로 이해되었다. 치산·치수(治山·治水)를 생각해 보면 분명해진다.

자신의 학문과 인격을 도야하는 수기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만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치인의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인식이었으므로 수기가 전제되지 않은 치인은 성립될 수 없었다.

그들은 민본주의에 입각한 이상향의 건설을 지향하였다. 그 이상향은 역사적으로 요순삼대에 이 세상에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였다. 따라서 수기가 제대로 된 선비, 즉 군자가 치인의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이미 이 세계에 존재한 바 있으므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던 이상향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세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사고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향하여 분골쇄신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선비였다.

선비는 문·사·철을 전공필수로 하여 이성훈련을 하고 시·서·화를 교양필수로 하

여 감성훈련을 함으로써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된 인간형을 추구하였다. 문(文)은 문장학이고 사(史)는 역사, 철(哲)은 당시용어로는 경학(經學)이다. 순서도 경학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역사, 마지막으로 문장이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경학으로 깨우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제반현상을 역사로서 이해하고 경학을 씨줄로 역사를 날줄로 삼아 입체적으로 파악한 진리를 문장이라는 그릇에 담는 것으로 인문학의 완성도를 높였다. 문·사·철은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하여야 제대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의 학문은 잡학으로 간주되었으니 선비는 기본적으로 인문학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시사(詩社)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시(詩)를 지어 상호교감하고 시에 얹힌 이야기와 역대시인들에 대한 담화인 시화(詩話)를 나누었다. 선비에게 있어서 글씨인 서(書)는 누구나 갖고 닦아야 할 대상이었지만 그림은 모든 선비가 반드시 그려야 하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시·서·화 역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빛나는 통합예술의 성격이 짙어서 선비들은 당연히 시·서·화를 아우르는 감성훈련을 하며 교양을 닦았다.

선비의 특징적인 면모는 일관주의(一貫主義)에서 잘 나타난다. 유교에서 강조되는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이념은 일관된 가치지향과 행동규범으로 선비의 삶과 행동을 규정하였다. 자신과 타인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박하되 남에게는 후하게 대하는 박기후인(薄己厚人)의 생활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 일관성은 세력에 따라 표변하는 기회주의를 용납하지 않았다. 선비의 지조와 절개는 선비로서의 징표 같은 것이었다.

선비란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단단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외유내강(外柔內剛)한 인물상이며 영어의 젠틀맨(gentleman)이 여기 해당하는 것이나 아닐지 싶다. 청빈을 미덕으로 삼아 검약(儉約)을 실천하는 청빈검약(淸貧儉約)의 생활철학을 가진 사람이 선비이다. 조선선비에게 있어서 호화와 사치는 금기사항이며 국가사회의 공적(公敵)으로 치부되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 청빈은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편안

하게 여기며 그 속에서 도(道: 진리)를 즐기는 경지에 까지 이른 것이었다. 인생의 모든 부분에 달관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선비란 결국 세속적인 일에 대하여 초연할 수 있는 정신세계에 진입한 학인이다.

선비가 지향한 가치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사항이 학문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학행일치(學行一致)의 방향성이다.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길 때에 비로소 그 배움이 의미를 갖게 된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귀의하던 경전인 <논어>의 첫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배워서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에서 익힌다는 말은 바로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의미로, 학행은 함께 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기쁨을 느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실천 없는 학문의 공허함을 지적한 것이며 선비는 반드시 학행을 일치시킴으로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 실천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의리(義理)와 명분(名分)이었다. 사람이 지켜야 할 떳떳하고 옳은 도리인 의리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따져 보아야 하는 기준이었다. 명분이란 각기 이름에 걸 맞는 분수나 역할로서 당시대는 명분사회였기 때문에 요행히 법망을 피하더라도 의리와 명분을 어기면 선비사회에서도 태당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이익을 도외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선비는 일에 임하여 명분과 실리를 합치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양자의 합치가 어려워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명분을 택하는 것이 선비로서 살아남는 길이었다.

또한 의리를 지키되 인정(人情)과 조화시키려 노력하였다. 의리만을 따지면 세상살이가 삭막하고 메마르기 쉽다. 인정만을 베풀면 기준이 없이 혼란스러워지므로 의리와 인정을 적절하게 보합하여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부추겨주며(抑強扶弱), 공적인 일을 우선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하기(先公後私)를 실천하여 모든 구성원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공존(共生共存)의 이상사회, 즉 대동사회(大同社會: 작은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볼 때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라는 공동체 사회를 내세가 아닌 현세에

건설하려는 이상을 갖고 있는 이상주의자들이었다.

이 점이 이 세상의 곤고로움을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전단계로 보는 다른 종교와 유교의 차별성이며 선비는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역군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나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삶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약육강식이라는 동물세계의 논리를 극복하려는 인간화 노력이었다. 사(士)·농(農)·공(工)·상(商)이라는 능력별 직업적 차별화는 인정하되 기본적으로는 함께 가는 사회를 대동사회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선비정신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이겨내어 예로 돌아가는 극기복례(克己復禮)이다. 극기는 자신의 탐욕이나 게으름 타성 등을 이겨내는 것이다. 예란 인간과 인간사이의 애경을 극진하게 하는 준칙이다. 자신의 욕심이나 게으름을 이겨내어 타인을 배려하는 예의를 갖추는 일이야말로 선비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었다. 선비의 최종 지향점은 중용의 정신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지나치지도 않은 조화와 균형 감각이 요구되는 중정(中正)의 상태,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선비정신에서 계승해야할 가장 절실한 리더십을 꼽으라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언행일치(言行一致), 배움과 행동이 일치되는 학행일치(學行一致)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실천이 결여된 주장이나 공약은 공허하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믿음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 일도 성공할 수 없다. “너나 잘 하세요.”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도 결국 실천 없이 입으로만 교언영색(巧言令色)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야유일 것이다.

3. 선비의 지방교육기관 서원과 향교

조선은 교육을 국가통치의 근간으로 삼은 나라였다. 유교가 교육을 통한 인간화 작업을 중요하게 여겼으므로 유교 중에서도 도학에 초점을 맞춘 성리학을 국학으로 삼은 조선왕조에서는 교육이 국가시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었다.

가정교육은 물론이려니와 서울에는 4학(중학·남학·서학·동학)과 성균관이라는 최고학부를 설치하였다. 농업국가였던 조선은 지방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국가에서 농촌지방에 향교를 설치하여 서울의 4학에 준하는 교육을 하였다. 오늘날 고등학교 교육수준으로 이해되고 있다.

조선 초 태조에 의해서 설치된 향교는 관료양성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교육의 질이 문제되면서 향촌사회 곳곳에 서원이 생겨났다. 서원은 사학으로 출발하였지만 국가나 지방관의 후원을 받고 지방사회의 부조나 기부금으로 운영되었기에 공교육의 성격이 강했다. 서원은 조선중기 사람의 등장과 그 이후 사람의 성장과 궤적을 같이하며 늘어나기 시작하여 숙종대에 절정기를 구가하였다.

서원은 사족의 교육과 교화기관으로 시작했지만 향촌운영기구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교육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지방 사람의 향촌지배체제를 공고하게 하고 봉당의 정치세력의 후방 기지로서도 역할을 하였다.

왜란과 호란의 양난을 겪고 충신과 열사를 추모하는 사우(祠宇)가 전국 각지에 생겨나면서 서원과 사우는 동질성을 갖고 번성하였다. 숙종대에 이르면 전국적으로 불어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확대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피역의 수단이 된다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집권세력의 추앙인물을 빙자한 권력의 남용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급기야는 서원을 철폐해버려야 한다는 여론까지 나타나 대원군은 1865년부터 1871년까지 서원개혁을 단행하였다. 전국에 넘쳐나던 서원을 당론의 원천지로서 면세·면역의 특권을 누리며 국가재정을 쪼먹는 원흉으로 지목하여 사액서원 47곳만 남겨놓고 모두 철폐하였다. 조선왕조의 말기적 폐단으로 국가의 철퇴를 맞은 서원들은 쇠퇴일로였고 근대에 이르러 망국기를 거치면서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아직 서원들이 남아있고 또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계속 복원되고 있다. 또 향교도 전국에 산재해 있고 복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서원·향교들은 대부분이 산수 좋고 햇볕 잘 들고 배수 잘되는 명당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외에는 인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빠른 속도로 퇴락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새로 복원된 서원이나 향교조차 사람의 손길에서 벗어나 퇴락하고 있다.

성균관이나 서원이나 향교 할 것 없이 모든 전통시대 교육기관은 제사 공간, 교육 공간, 그리고 기숙사, 도서관 등 기본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제사공간에 해당하는 대성전은 유교성현의 위패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제의를 행하였다. 제의를 통한 인성교육의 장이었다. 명륜당 등 교육공간에서는 지식교육이 이루어졌다. 오늘날은 대성전의 기능만 살아남아 일 년에 몇 번 제사지내는 것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서원과 향교는 대부분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첫째, 이들을 문화재라는 틀 속에 넣어 보호대상으로만 여기는 행정관청의 고정관념을 들 수 있다. 물론 문화재는 보존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이 건물일 때는 사람이 살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지 빈집으로는 보존될 수 없다.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방치가 되기 십상이다.

둘째, 이들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유림들의 보수성이 문제가 된다. 한문교육이나 예절교육이외에는 용납하지 못하는 풍토가 아직도 남아 있다. 물론 돈이라면 귀신도 움직인다는 이 눈먼 자본주의시대에 이리저리 휘둘러 그나마 갖고 있던 자존심마저 손상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셋째, 이들 서원·향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 순기능을 살려 우리의 삶에 이바지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려는 고민과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국가 사회 개인을 불문하고 사장되어 있는 국가자산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4. 서원 향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대 서원과 향교는 선비의 기초교육을 담당한 지방학교였다. 지식만 주입

하며 인격적으로 결함 있는 인간을 양산하는 현재의 학교교육으로는 인성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가장 절실한 인성교육문제를 푸는 현장으로 서원과 향교가 거듭 날 수는 없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통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 사회는 일제의 전통문화 단절 정책과 그 후에 진행된 서구화 일변도의 국가방향성, 한자교육 폐기로 인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문맹인이 의외로 많다. 한문교육과 예절교육은 이들 건물군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엄숙주의를 벗어나기 어렵고 다양성이 부족하다.

서원이든 향교든 풍광 좋은 위치에 있으므로 주변의 아름다운 산수를 활용한 초록명상산림욕이나 걷기대회, 유가적 심신수련법이라 할 수 있는 양생법 등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어 건강과 휴식, 오늘날의 화두인 힐링의 의미를 더하면 좋겠다.

바야흐로 힐링이 대세다. 도시생활에 지친 이들을 위하여 좋은 환경에 있는 서원이나 향교의 주변 자연은 훌륭한 위안이 될 수 있다. 뒷산의 숲길을 천천히 거닐며 성(誠)이란 무엇일까? 경(敬)이란 무엇일까? 신(信)이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활을 찬찬히 되돌아보며 마음을 정화시키고 생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을 쉬어가는 쉼터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주변의 문화재를 답사하고 농촌마을과 연계하여 고향을 지키고 있는 어머니들의 손맛을 빌어 전통음식, 즉 건강식을 만들어 즐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 체험까지 곁들이면 일석삼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어린이 여름 캠프를 열어 서예와 그림, 국악교실을 운영하여 그 결과를 시화전이나 백일장, 음악회 등으로 분출시키도록 기회를 만들고 대동제 같은 축제 한마당으로 결집해도 괜찮을 듯싶다. 또 책거리 같은 그림도 교육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예술품이므로 모사부터 해 보도록 유도하면 재미있는 예능교육이 될 수도 있다.

전통시대 문자도 같이 그림과 글씨가 어우러지며 글공부도 할 수 있는 그림은 훌륭한 전통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효제충신(孝悌忠信)이나 예의염치(禮義廉恥), 인의예지(仁義禮智)같은 유교적 윤리덕목을 내용으로 하는 글자를 그림으로 표현한 윤리문자도는 그 자체가 예술작품이면서 그 뜻을 배우는 교재도 될 수 있다.

강원도문자도 제주도문자도 등 지역적 특징도 있으므로 비교하여 차별성을 분별하게 이끄는 것도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 거기 나타나 있는 물고기나 새, 화초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도 재미있는 교육방법이 될 것이다. 문자도는 민화의 한 종류로 정통회화 수련 없이 눈썰미로 그리는 것이므로 사전 미술교육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동재와 서재 등 기숙사시설을 현대화하여 숙박기능을 강화하여 소수정예로 나가면 휴가를 알차게 보내려는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동북아시대를 맞아 공통문자로 유효한 한문교육, 유교경전의 참뜻에 대한 침잠과 음미를 통한 인성교육, 예절교육을 통한 품격 있는 사람 만들기, 시·서·화 실기교육을 통한 감성교육 등 통합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전공이라는 이름으로 파편화된 지식의 편린들을 주입시키는 현재의 학교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문·사·철을 융합하여 전공필수로 하고 시·서·화를 교양필수로 하던 선비교육의 현대판 교육기관으로 서원 향교가 거듭날 수는 없는 것일까? 이성교육과 감성교육을 함께하여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된 인간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전통시대에는 시대마다 통유(通儒)가 배출되었는데 이 시대엔 통유가 없다. 통합교육이 부재한 탓이다.

<현대소학>을 만드는 일도 시급한 일이다. 전통시대 어린이들은 <소학>의 쇄소(刷掃) 응대(應對) 진퇴지절(進退之節)이라는 기본적 행동교육부터 하였다. 자신이 자고난 자리, 자신이 어지럽힌 것을 자신이 청소하게끔 교육시키고, 손님이 오면 나가가 인사하고 맞아들이는 예절, 그리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범절 등을 어릴 때부터 몸에 배도록 익히게 하였다.

지금 그와 같은 교육을 꼭 같이 재현할 수는 없지만 청소하는 방법, 집 아름답게 가꾸기, 잡초 뽑기 등을 즐겁게 협동 작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는 있다. 나아가 어릴 적부터 예절을 몸에 익히기 위하여 세계 보편적인 어린이의 교양교과서가 절실하다. 역사 철학 문학 외에 교육학 심리학 등 현대학문을 하는 이들이 모여 오늘날에 맞는 어린이의 수신교과서로 <현대소학>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제대로 가르치려 해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이 되기 십상이

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에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는 <현대소학>을 만들어 보급한다면 인성교육의 기초를 단단히 다질 수 있다. 이런 작업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야 가능하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서원과 향교 중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을 도별로 선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운영하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지방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듯싶다. 건전하고 낭비 없는 휴가문화의 개발에도 기여하게 될 터이다.

이러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우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서원·향교·사우의 기본정보(이름 소재지 보존상태 등)를 담은 분포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실현 장소로 서원 향교를 활용하면 잘 맞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정조의 화성행차 여덟 폭 병풍에 그려져 있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을 재현하는데 시흥향교가 중심이 되고 그 공간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영방법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문화사업과 사회기여 차원에서 동참한다면 기업의 자금과 경영노하우까지 곁들여 성공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기업은 큰돈 안들이고 홍보효과를 거두게 되지 않을까?

우리 시대 유교는 왜 필요한가?

강 진 갑(문학박사, 경기대 교수)

<목 차>

1.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유교가 우리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2. 유교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3 유교 연구 및 경전 교육 프로그램(안)

1.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유교가 우리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서원, 향교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유교가 우리시대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1) 유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 인식

- 유교는 버려야 할 과거의 유산인가? 아니면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해서 우리 시대의 정신적 자산으로 활용해야할 가치체계인가?
- 유교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유교가 나라를 망쳤다는 생각을 하고 유교를 멀리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 유교에 대해 평가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는다. 한국사학계에서는 1980년대 이후 조선시대 유교의 역사적 기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 세계 학계에서도 유교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20세기 후반 한국을 비롯한 일본, 싱가포르, 타이완 등이 놀랄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자, 이들 국가가 유교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주목하고

유교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학계 모두가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아시아 자본주의 경제성장과 유교를 연결시키는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해석이고,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2)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유교

- 그런데 우리의 생활을 조금만 관찰해보면 우리 생활 속에 유교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첫째 강하게 남아 있는 가족 의식이다.
- 둘째, 조상의 제사와 장례 절차에 남아 있는 유교 유산
- 이 밖에 가계의 계승을 남자 중심으로 하는 것 등이 우리사회에 남아 있는 유교적 생활 습속들이다,
-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 유교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유교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국인들의 유교에 대한 인식은 이처럼 스스로 모순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3)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한국 유교

- 왜 유교가 현대사회와 맞지 않은가
- 한국 유교가 조선시대 농업사회를 기반으로 발전된 봉건적인 이데올로기라서 현대 자본주의와 맞지 않아서인가?
- 오늘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 대부분이 지금부터 1,500년에서 2,000년 이전 시기, 유목사회 또는 농업사회를 기반으로 성립되었으나 지금 세계 종교로 인류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다.
- 그런데 왜 비슷한 시기에 성립된 유교만 현대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가. 필자는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이 현대사회와 맞지 않는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라 생각한다. 시공을 초월하여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는 모두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진리를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세계적인 종교의 경전을 찬찬하게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세계적인 종교는 보편적 가치 중심으로 재해석 되고 정리되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으나, 유교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유교가 지금부터 할 일은 무엇인가?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 중심으로 유교를 재해석해서 일반인들에게 내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 유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예

중국 유교자 장재(張載)는 효 개념을 확장하여 천지를 우리 부모처럼 모시고 모든 사람을 형제처럼 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다음과 같이 펼치고 있다.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이다. ... 모든 사람은 나의 동포요, 나의 동반자이다. 약하고 지친사람 병들고 상한 사람 형제가 없거나 자식이 없거나 홀아비나 과부와 같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나의 형제이니 그들을 보호하고 살피는 것은 자식으로서 공양하는 것이요 이를 즐겁게 여기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순수한 효이다.’

장재는 효를 한 가정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사랑의 도리라는 확장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다.

- 정민 교수는 『다산선생 지식 경영법』에서 정약용의 글을 분석하고 정리해서,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단계별 학습이라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경영인들에게는 창의적인 경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삼성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내 모든 경영 비법은 논어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 KBS가 엮은 『유교 아시아의 힘』에는 유교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21세기 아시아 나아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이 담겨 있다.

2. 유교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은 그동안 경제성장을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은 늘어나고 산업화는 19년 만에 달성하였다.
- 경제가 성장하면 그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경제생활도 나아진다. 한국사회는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사람이 늘어났는데도, 행복해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불행해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고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자살한다고 한다.
- 행복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심리학자 에드 디너 교수가 2010년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심리학회에서 ‘한국에서의 불행’이라는 주제로 논문

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는 한국의 소득 수준이 세계에서 높은 편인데 행복을 느끼는 감정은 하위 수준이어서 놀랍다고 하였다.

- 에드 디너 교수는 개인적인 성취와 주변 사람과의 관계 등과 같은 ‘삶의 만족도’와 즐거움을 느끼는 ‘긍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슬픔, 권태,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적게 느낄수록 행복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를 한국사회의 물질주의와 사회적 자본의 취약에서 찾고 있다.
- 한국인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 소유한 재화 많고 적음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할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때이다. 인문학은 인간을 성찰하는 학문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깨닫게 해주고, 자신의 주체성은 물론이고 타인의 삶도 이해하게 해준다.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게 될 때 타인과의 관계도 개선될 것이고 타인의 행복도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가족과 친구 등 주변사람과의 좋은 관계 맺기에서 출발한다.
- 한국인들이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유교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유교는 한국 사회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유교 연구 및 경전 교육 프로그램(안)

3- 1. 한국사회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유교

- 개인의 행복감 증진 방안을 유교에서 찾기

3-2. 유교에 대한 현대적 해석 연구

- 2011-2012년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실에서 유교의 현대적 재해석 작업을 하였고, 그 성과를 『유교 시대와 통하다』(2012, 자음과 모음)로 간행한 바 있다
- 그러나 이 작업은 기초적인 작업이고 유교의 현대적 재해석 작업은 지금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 유교 경전 교육

최근 인문학 학습 붐이 일고 있다. 문학, 역사, 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급, 중급 단계의 유교 강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유교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는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한다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3-3. 교육 콘텐츠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한국사회의 교육열은 매우 높다.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방학 중에 어린이 예절교실을 운영하거나 학부모와 함께 하는 어린이 교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교실을 운영하기 전에 교육과정에 대해 사전에 치밀하게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
- 유교 학습법 교육: 학습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인 유교 교육의 학습법 중 오늘날 활용한 가능한 부분을 연구하여 이를 강의한다면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도 크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 전통 예술 교육: 시조는 문학과 소리가 결합된 선비문화의 상징이다. 전국적으로 유도회원들이 시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 최근에 들어 격조 높은 전통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직접 배워서 체험하려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시조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3-4. 전통의례 재연 콘텐츠

1) 성년식

- 성년식은 성년이 되는 청소년에게 사회인으로서의 책무와 어른 된 자부심과 용기를 심어 주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이다. 5월 셋째 월요일이 성년의 날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성년 행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 가정과 직장에서 거의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학교에서 성년식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서원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성년의식을 직접 하거나 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2) 향음주례(鄉飲酒禮)

- 향음주례는 서원이나, 향교 등지에서 선비나 유생들이 학덕 높은 이를 모시고 술을 마시는 잔치이다. 술을 마시면서 예를 배우는 향촌의례다. 최근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을 잘못 마셔 신입생이 죽음에 까지 이르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한국 사회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이야기가 있다. 도봉서원 단독으로, 또는 인근 대학교와 연계하여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향음주례를 실시하여 젊은이들에게 술 마시는 법과 전통 문화에 대해 이해를 가지는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3) 전통혼례

- 오늘날 혼례식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많은 비용이 드는 등 많은 이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서원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통 혼례를 올리거나, 관광회사와 연계하여 관광체험행사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5. 효 콘텐츠: 효의 현대적 해석, 가족사랑 운동의 전개

- 새로운 효 가족운동은 변화된 가족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 한국의 가족형태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전 한국사회에서는 한국인 남녀가 결혼하여 자식을 둔 가족을 정상적인 가족 형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한 부모 가족과 재구성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별거 가족, 독신 가족도 나타나고 있다. 또 입양 가족, 노인 단독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족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결손가정이란 표현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비정상적인 가정, 결손 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을 뿐이다. 다만 사회가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을 뿐이다. 소년소녀가장 가족, 독거노인가족 등이 그 대상이다.
-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가족 간의 관계도 변하고 있다. 이전 한국 가족은 수직형 가정이었다. 가부장 중심이고, 남녀 간에도 수직적 차별이 명백하였다. 부부관계보다 부자관계가 우선시된 가족 구조이다. 그러나 최근에 가족 간의 관계가 수평형 가족형태로 변하고 있다. 가족구성원의 개성이 존중되

고, 가장의 일방적 통솔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민주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족이다. 가족 내에서도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있다. 부자관계보다 부부관계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

- 수직형 가족 폐단 극복하기 위해 수평형 가족이 창출되었으나 수평형 가족도 부작용이 크다. 다세대가 넘나드는 가족 구조이기에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하다. 부부중심 가족 구조가 이혼율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은 심각한 폐단이다.
- 강지원 변호사가 수평형과 수직형 가족의 장점을 도입한 ‘+형 가족구조’를 주장하고 있다. 공감이 가는 주장이다.
- 전통적인 효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가족 사랑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 며느리들이 더 이상 명절 증후군을 겪지 않게 명절 때 며느리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같이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효, 가족운동을 펼쳐야 한다, 효행상을 자기희생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즐겁게 효를 한 사람에게는 시상해야 한다. 효 매뉴얼을 개발하여 효를 즐겁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¹⁾ 이러한 새로운 효 가족 운동을 서원, 그 중에서도, 개혁적인 정치인이자 사상가인 조광조 선생을 모신 도봉서원이 중심이 되어 전개하기 바란다.

1) 가족 공동 프로그램

- 가족간 편지쓰기 :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편지쓰기
- 효 가족사랑 캠프 운영: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하는 캠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는 캠프 등
- 청소년에게 익숙한 노래, 춤, 게임을 프로그램에 도입하여 부모와 함께하는 노래 경연대회, 춤 경연대회, 퀴즈 경연대회, 게임 경연대회 개최.

2) 청소년 프로그램

- 부모 생신 때 감사장 드리고, 부상으로 어머니 일 도와주는 증서를 증정 (어린이가 설거지 5번 해 드리기 등등)
-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인 UCC공모전 개최
- 청소년이 부모에 보내는 영상편지 쓰기

3) 며느리와 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며느리들의 수다’: 며느리들의 부모 모시기 어려움을 토로하고, 새로운

1) 강진갑, 2009, 「지역문화 발전과 활성화방안」, 『전남문화』22,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라남도지회, 17-18쪽.

부모사랑, 가족사랑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모색하는 토론의 장

○ ‘딸들의 꾸넴’: 딸의 입장에서 효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

* 며느리들의 수다, 딸들의 수다는 토론 형식, 또는 연극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음

4) 사랑받는 부모 되기: 가칭 부모들이 효도 받는 방법 경연대회 등 개최

5) 효 가족사랑 매뉴얼 제작

○ 청소년을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러므로 가족 간에 사랑하는 방법, 쉽게 효를 실천하는 방법을 수록한 매뉴얼 제작이 필요

○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효, 가족 사랑하는 방법 제시

○ 다문화 사회에 맞게 각 나라의 가족제도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효, 가족 사랑’ 실천법 제시

6) 새로운 효행상 제도 시행

○ 자기희생적인 효 외에, 일상적인 상황에서 누구나 쉽고 즐겁고 편하게 할 수 있는 효가 권장되고 이들도 효행 선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자기희생적인 효뿐만 아니라 밝고 쉽게 할 수 있는 효를 행한 효행인도 발굴하여 시상

7) 새로운 가족에 대한 연구

○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족상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세미나 개최

○ 다문화 가족 사회에 맞는 새로운 ‘효, 가족사랑’ 방법 연구

8) ‘효 가족사랑’ 캠페인 전개

○ 명절 준비를 가족 모두가 같이 하기 캠페인: 며느리들이 명절 때의 노동 수준의 거의 중노동 수준이라 한다. 이제 이 노동을 가족들 전부, 아버지, 딸, 사위, 아들이 함께하자는 캠페인이다.

○ ‘효 타임(Happy Hour)’ 실현: 하루 한번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하는 시간대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

○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캠페인을 축제 기간 중 시작하여 연중 계속 추진

유교 사상의 현대적 해석과 적용

최 정 준(성균관대 교수)

<목 차>

1. 유(儒)의 세계관, 현실과 중(中)
2. 현실
3. 중(中)의 또 다른 이름 - 화(和)와 평(平)
4. 결론

1. 유(儒)의 세계관, 현실과 중(中)

맹자는 공자에 대해 배움을 싫어하지 않고 사람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²⁾ ‘학불염이교불권(學不厭而教不倦)’이라 평가하였다. 여기에서 학과 교의 담지자가 바로 유(儒)이다. 이 유(儒)를 배우면 유교(儒學)이고 이 유를 가르치면 유교(儒敎)이다.³⁾ 유교를 동양의 오래된 전통사상인 동양 삼교(三敎)에 포함된 선교나 불교와 대비해 볼 때 그 의미가 확연해진다. 선(仙)은 글자 그대로 산인(山人)으로 은일(隱逸)의 기풍이 있고 불(佛)은 불인(佛人)으로 현실을 전도(顛倒)된 세계로 부정하는 의미가 있다. 이에 비해 유(儒)란 글자 그대로 수인(需人)으로 필수(必須)의 의미이다.

수(需)란 주역 64괘에 들어있는 수천수(水天需)라는 괘에서 그 깊은 의미를 만날 수 있다. 수천수(水天需)는 물기운이 하늘위에 있는 상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상이다. 생물이 우로받아 살기에 비를 기다리듯이 수(需)란 일차적으로 ‘기다림’이라는 뜻이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생존에 필수(必須)적인 음식이기에 음식과 같은 ‘필수(必須)’라는 의미를 지닌다.⁴⁾

2) 논어, 술이 : 子曰: 默而識之, 學而不厭, 誨人不倦, 何有於我哉?

3) 유교가 하나의 학문적 연구대상이라는 學적인 의미보다는 전파할 만한 가치를 지닌 진리체계라는 차원에 주목하여 이하 유교라 칭한다.

4) 주역, 需卦, 象曰, 雲上于天, 需, 君子以飲食宴樂.

음식처럼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수인(需人)이고 유(儒)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모름지기 사람들이 모두 기다리고 바라는 군자로서의 유(儒)가 진정한 유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함을 권하였다.⁵⁾ 유(儒)라는 의미에서 드러나듯이 유교는 현실의 문제에 적극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있기에 유교가 현실을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왜라는 질문이 무색하다.

그렇다면 유교 진리체계의 시원(始原)은 무엇인가? 유교가 공자를 조종으로 삼는다고 할 때 공자는 다시 요순을 조종으로 삼고 있다.⁶⁾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자리를 물려주며 전한 핵심은 중(中)을 잡으라는 것이었다.⁷⁾ 그렇다면 이 중(中)은 어디에서 연원한 것일까? 공자는 요순이전의 성왕(聖王)의 도(道)의 연원을 황제씨, 신농씨를 거슬러 올라가 복희씨로부터 언급하였다.⁸⁾

복희씨가 우주의 공간구주와 시간변화의 원리를 담으려 창안한 팔괘(八卦)부호는 문자이전시대의 의사소통체계, 즉 또 하나의 언어였기에 그 안에는 사상이 담겨있다.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들어있는 팔괘부호는 모두 세 획으로 구성되어있다. 맨 위의 획은 하늘을 상징한 것이고 맨 아래의 획은 땅을 상징한 것이고 가운데는 사람을 상징한 것이다. 상중하(上中下)의 천지인(天地人)은 상천(上天)과 하지(下地) 중인(中人)이다.

유(儒)를 수인(需人)이라 할 때 수(需)가 현실참여의 의미라면 인(人)은 팔괘의 구성에서 그 자체가 인중(人中)의 가운데라는 뜻을 지닌다. 유교의 핵심사상의 중(中)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도상적으로 가운데라는 쉬운 의미에서 중용, 중심, 근본 등등의 깊은 철학성으로 확충되면서 유교의 중(中)사상은 발전을 거듭해간 것이다. 그러므로 선비라는 유(儒)의 세계관은 ‘현실(需)’과 ‘중용(人)’으로 압축된다.

2. 현실

지금 현실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가? 또 어떤 의미와 유용성을 줄 수 있을까?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선비(儒)의 관점이다. 인간이 겪는 보편적 문제와 21세기라는 시대적 주요

5) 논어, 옹야 : 子謂子夏曰：女爲君子儒，無爲小人儒.

6) 중용, 30장 : 仲尼祖述堯舜，憲章文武；上律天時，下襲水土.

7) 논어, 요알 : 堯曰 咨！爾舜！天之曆數在爾躬。允執其中。四海困窮，天祿永終。舜亦以命禹.

8) 주역, 계사하전 제2장 :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仰則觀象於天，俯則觀法於地，觀鳥獸之文與地之宜，近取諸身，遠取諸物，於是始作八卦，以通神明之德，以類萬物之情。作結繩而爲罔罟，以佃以漁，蓋取諸離。包犧氏沒，神農氏作，斲木爲耜，揉木爲耒，耒耨之利，以教天下，蓋取諸益。日中爲市，致天下之民，聚天下之貨，交易而退，各得其所，蓋取諸噬嗑。神農氏沒，黃帝堯舜氏作，

문제를 주제별로 볼 때 대략 아홉 가지 내외로 요약해볼 수 있다.⁹⁾

첫째는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파괴의 문제이다. 둘째는 세계의 공간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지구촌의 시대라는 큰 변화에 따르는 다양한 문화체계 간의 어울림이라는 다문화의 문제이다. 셋째는 자본주의라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 수 있다. 넷째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맞물린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른 문제들로 고령화, 세대, 효의 문제 등이다. 다섯째는 인간의 통시대적 주제인 삶과 죽음과 관련한 종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여섯째는 과열되어있지만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하는 가치관으로서의 교육의 문제이다. 일곱째는 전통문화 속에 다양한 분야에 스며들어있는 문화예술과의 관계이다. 여덟째는 자신의 처세와 타인의 지도(指導) 및 정치적으로 국민을 통합해나가는 리더십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환경에서 고민되는 남북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주제들을 관통하여 해석하고 대안의 제시할 수 있는 원형이 바로 유교의 세계관이다.

3. 중(中)의 또 다른 이름 - 화(和)와 평(平)

3-1 화(和), 음양의 조화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자연과 인간, 자본과 인간, 부부와 자녀, 노인과 청년, 삶과 죽음, 교수와 학습, 철학과 문예, 수기와 치인, 남한과 북한 등의 상대적 관계에서 어떤 지향점을 이루어낼 것인지의 문제이다.

대표적 예로 생태문제와 자본주의적 사회구조에 따른 가치관의 문제등과 관련해서 통찰해 볼 때 가장 문제가 크고 심각한 있는 것은 물(物)과 신(神)의 불균형이다. 현대 자본주의사회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영역과 신적 영역에 있어서 한 인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물질 영역으로 쏠려있다. 사람들의 심성까지 물질화 되어 있는 정도가 심각한데, 만약 큰 차원에서의 건강한 변화를 추구한다면, 물질의 발달과 정신건강간의 새로운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둘 다 병들 수 밖에 없다. 이런 평가 역시 인중(人中)의 세계관에서 기인한다. 사람은 하늘과 땅의 가운데 있어 하늘로 상징되는 형이상적 정신과 땅으로 상징되는 형이하적 육체를 함께 지닌 존재이므로 반드시 그 둘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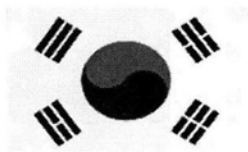
밤만 지속돼도 생명이 죽는다. 낮만 지속해도 마찬가지로이다. 어느 하나가 지나

9) 이 아홉 가지는 경기학연구실의 유교현대화사업의 연구결과이기도 하다.

치게 쏠리면, 결국은 반대도 쏠린다. 몸으로 보면 육신이 병이 들면 정신이 성하지 못하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를 몸으로 놓고 보면, 이것들 간에 악순환이다. 그래서 이 세계가 나갈 수 있는 지향점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상이 필요한 것이다. 그 사상이란 것이 결국은 큰 틀에서 음양조화인데 조화라는 것은 대척점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무작정 합치는 것이 아니라 지향점을 가지고 상호 화해(和諧)하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방향성을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는 사상이 바로 우리나라 태극문양에 들어있는 음양 조화라는 화(和)의 사상이다. 대척점이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보적인 중심점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태극이란 말 자체가 유교경전의 최고봉인『주역周易』계사전의 ‘易有太極’에서 나왔다. 그런 만큼 태극의 사상은 음양(陰陽)이란 개념을 수반한다.

太極旗



태극 속의 음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밤과 낮의 음양이며 하나는 남과 여의 음양이다. 음양은 상대를 용납하지 않고 배척(排斥)하는 상승(相勝)적 일면과 상대의 도움을 필요(必要)로 하는 상보(相補)적 일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밤이 오면 낮은 물러나야만 한다. 반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한다.

또 음양은 상호 전화(轉化)를 하며 상함.(相含)한다. 전화(轉化)란 낮이 밤으로 바뀌고 밤이 낮으로 바뀌는 것이다. 상함.(相含)이란 남자속에 여성성이 있고 여자 속에 남성성이 있음이다. 그리고 이 음양은 모두 太極이라는 우주적 근원에서 나와 이 근원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렇듯 음과 양으로 서로 다른 나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조화를 이루며 자기의 중심(지향점)을 잡아 나가라는 것이 태극문양의 철학적 함의이다.

자기의 세계적 지향점을 찾기 위해 타자는 꼭 필요한 것이다. 각자 자기 주관 이 확실하다고 집착하여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 있는 것 천지비괘로 막힐 비괘이다. 비색(否塞)하다고 한다. 하늘의 자기 고집은 위에 있고 땅에 자기 고집은 아래로 간다. 반면에 하늘이 아래 있고 땅이 위에 있어 서로 바뀐 상태를 지천태괘라 하여 태평(泰平)하다고 한다. 자기 중심만 세운다고 하여 그 자체가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자체를 세우는 것이 나 혼자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간의 상호 균형의 지점에 자기 중심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中)은 고정된 어느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타자와의 균형점이 화(和)로 표출될 수 밖에 없다. 이는 모두 ‘내속의 너’, ‘너속의 나’ 라는 음양적 개념으로 이해 가능하다.

3-2 平(평), 세계변화의 지향점 ‘平天下’

유교의 핵심사상을 중이라 하였다. 중은 곧 중용인데 이 중용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적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다. 그렇다고 할 때 중용을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현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는데 화와 더불어 또 다른 하나가 바로 평(平)이란 개념이다.

유교의 경전인 사서(四書) 가운데 맨 처음, 과정에서 학습하는 『大學』의 대체적 강령(綱領)과 구체적 조목(條目) 가운데 가장 마지막 과정의 목표도 평천하(平天下)이다. 평천하의 평은 세계의 패권을 거머쥔다는 의미가 아니다. 평은 형평(衡平)으로 무게를 재는 저울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평함을 뜻한다. 사회 정치적 차원에서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평천하라는 것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세계적 차원의 여러 분야 간의 알맞은 형평성을 말한다.¹⁰⁾

형평은 단순히 법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전반에 걸친 형평인데 이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무게를 지닌 다양한 물건을 저울질해야 한다. 저울을 제대로 달아 저울대가 평평해 지기 위해서는 어느 지점에 중심을 잡을 것인지가 나와야하는데 이 지점이 추상적 중용의 구체적 현현이고 그것이 평(平)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잘 드러내주는 그림이 바로 낙서이고 마방진이다. 동양의 낙서라는 그림은 전설에 禹임금이 9년 홍수를 당해 치수(治水)사업을 할 때 신비한 거북이가 발견되었는데 그 등에 숫자모양이 새겨있었다는 것이다. 유교경전이 『서경』에 의하면 오행(五行)학설은 원래 우임금시절에 정립된 정치학설로서 가치를 지닌다.¹¹⁾

4	9	2
3	5	7
8	1	6

낙서는 수의 구성원리를 통해 세계관을 표출하고 있다. 먼저 세계사회의 모든 존재자가 타고난 내적 성향과 외적 환경의 수치가 같을 수가 없다는 점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렇게 각각 다른 류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 이들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각각 다른 성질과 모양을 저울질하여 매개해 줄 수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의 역할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이다.¹²⁾ 이 9수 가운데 한가운

10) 대학, 所謂平天下在治其國者 上老老而民興孝, 上長長而民興弟, 上恤孤而民不倍, 是以君子有絜矩之道也. 所惡於上, 毋以使下; 所惡於下, 毋以事上; 所惡於前, 毋以先後; 所惡於後, 毋以從前; 所惡於右, 毋以交於左; 所惡於左, 毋以交於右: 此之謂絜矩之道.

11) 서경, 홍범 : 天乃錫禹洪範九疇, 彝倫攸叙. 初一日五行, 次二曰敬用五事, 次三曰農用八政, 次四曰協用五紀, 次五曰建用皇極, 次六曰乂用三德, 次七曰明用稽疑, 次八曰念用庶徵, 次九曰嚮用五福威用六極.

12) 주역, 謙卦 : 象曰, 地中有山, 謙, 君子以裒多益寡, 稱物平施.

데 5가 들어가서 정치적 구심점을 이루어야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니 유교 최고 경전인 주역에서 이를 구오대인(九五大人)이라고도 한다.

세계를 구성하는 인간은 나라별, 인종별, 민족별로 각각 형상, 개성, 직업, 능력, 기호, 신념 등등 서로 다르다. 국가적으로는 사회통합의 리더십이고, 세계적으로는 각자 다른 문화들의 속성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면을 찾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평(平)의 원리가 요청된다.

4. 결론

현실을 직시하여 규정하고 그에 알맞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학문, 동시에 현실을 규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中)의 원리가 담긴 가르침이자 글자가 바로 유(儒)이다. 대표적 유교경전의 중용과 대학에서 제시하는 것은 다름 아닌 화(和)와 평(平)이다. 화는 본성인 중이 현실에서 적절히 조화롭게 발현되어 세계 어느 곳이든 소통할 수 있는 가치이다. 평은 수신을 미루어 세계시민들을 리드할 수 있는 보편적 정치원리이다. 그리고 이 둘의 연원은 바로 서경과 주역의 중(中)이다.

훈민정음 맨 첫 머리에서도 ‘천지의 도는 모두 음양오행의 이치일 따름이다’라고 주장하였듯이 우리의 유교의 세계관은 음양과 오행으로 표출된다. 음양이란 화(和)를 지향하는 세계관이며 오행이란 평(平)을 지향하는 세계관(世界觀)이다. 그 가운데 낙서의 오행이 현실적 차원에서 형평의 ‘平’이라면 태극의 음양은 철학적 차원에서 조화의 ‘和’이니 평화(平和)란 단순히 전쟁(戰爭)의 반대가 아니다. 세계인이 각자의 규모에 맞게 중심을 잡으며 상호 조화를 이루어나가라는 사상이 들어있다. 이 평(平)과 화(和)는 현대세계의 문제를 바라보고 방향을 제시할 대원칙으로서의 현재적 가치이자 유교사상의 연원인 중(中)의 또 다른 이름이다.

향교·서원의 현황과 현대적 활용

- 경기도를 중심으로 -

박 성 진((사)서원연합회 상무이사)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한국의 대표적 유교자산 향교와 서원
3. 전국 및 경기도 향교 서원 현황
4. 향교 서원에 대한 가치 재인식
5. 경기 서원 관리운영의 새로운 방향 모색
6.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1) 교육입국의 위대한 역사

한국은 위대한 교육입국의 전형적 국가이다. 단적으로 한국의 향교와 서원의 숫자를 단순계산해도 이를 알 수 있다. 향교는 공립학교로 선현에 대한 봉사와 강학을 수행하였다면 서원은 특정 선현에 대한 향사와 사립학교 기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성종 17년(1488)까지 전국에 “1읍1교(一邑一校)”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訓導)가 파견되어 교육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8도에 모두 328개소의 향교가 존재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지방관제와 비교해 볼 때 거의 모든 읍에 향교가 설립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숙종 대에 이르러 사원(祠院)의 숫자는 909개였으니 1개 읍에 평균 3개의 사립학교가 있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조선시기에 존립했던 공사립학교는 1,200여 개소에 달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서원이 조선 말기 당쟁의 근원지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경쟁적으로 서원을 건립해서 후학을 양성하던 치열한 교육전쟁이 우리 국민의 인문학적 민도를 높였다면 단점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대원군 때 서원 철폐령으로 남은 서원사우는 47개소였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워버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다. 서원의 기능 가운데 향속을 핑계로 군림하던 제도적 문제점만 보완하면 되었던 것을 모조리 철폐시키는 학교 폐쇄령이 아닐 수 없었다.

세월은 흐르고 그 혹독한 동면의 계절 일제침략기 식민국가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교육입국의 유전자를 버리지 못했다. 일제 강제합병 이후에도 서원의 본래적 기능회복이라는 봉사와 향학 열망은 지속되었고 2013년 오늘 기준으로 전국에 다시 672여개의 서원이 건립되어 있으며 현재도 서원은 전국적으로 복원되거나 신설되고 있다.

2) 불변의 서원 향교 가치 세계문화 유산으로 곧 등재되어

향교(중국에서는 문묘 혹은 공묘라 칭함.)와 서원이 존립했던 국가는 중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동남아 일부 국가이다.

서원제도는 중국에서 비롯되었지만 중국과 한국, 일본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난다. 중국의 서원은 강학위주이고 일본의 경우는 기술전수학교 임에 반해 한국의 서원은 교화와 제향기능이 같이 중시된 전인적 인격함양을 통한 인재양성이 중시되었다. 특히 서원의 기능 중 제향의례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경우는 한국뿐으로 중국과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인물 ‘제향’의 전통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조선말기 중앙정부와 지방 사림들과의 갈등으로 훼손되는 위기를 맞았으나 바로 복원되어 향사기능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의 서원은 근대학제로 바뀌거나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 문묘와 함께 거의 파괴가 되어 온전한 서원의 건축과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서원건립의 정신이 본래의 뜻대로 유지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하겠다.

한국은 자원과 인구가 빈약한 작은 나라이다.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입국의 철학이 없었다면 수많은 전란을 통해 나라의 존립과 정체성을 지켜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한 강학과 향사기능을 보존해왔던 위대한 교육입국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영원히 보존 계승하고자 한국의 대표서원에 대한 인류의 문화유산 지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15년이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이다. 대표서원 등재 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오직 전인적 인재양성만이 자산일 수밖에 없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 불굴의 역사에는 서원과 향교가 배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교육에 대한 열망이 바탕이 된 학교 중시와 입신양명을 통한 출세의 전통은 지금도 전쟁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한국의 대표적 유교자산 향교와 서원

1) 역사

향교(鄕校)가 조선시대의 공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의 교육기관이라면 서원(書院)은 조선 중기 이후 명현(名賢)을 제사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한 사설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 공적 교육기관인 향교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쇠퇴해간 반면 사설 교육기관인 서원은 조선 중기 풍기군수(豐基郡守)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에 의해 백운동(白雲洞) 서원이 최초로 설립된 이후로 점점 번성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혈연(血緣)·지연(地緣) 관계나 학벌(學閥)·사제(師弟)·당파(黨派) 관계 등과 연결이 되어서 지방에 소재하는 양반층들의 이익집단화(利益集團化)하는 경향을 점차로 띠게 됐다.

특히, 나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사액서원(賜額書院)의 경우에는 부속된 토지는 면세되고 노비는 면역(免役)이 되었기 때문에 양민(良民)의 투탁(投託)을 유인해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서원은 양민(良民)이 원노(院奴)가 되어 군역(軍役)을 기피하는 곳으로 변질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군정(軍丁)의 부족을 초래했고 불량(不良)한 유생(儒生)들의 험잡소굴(挾雜巢窟)이 되는가 하면 서원세력을 배경으로 지방의 수령(守令)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등 작폐(作弊)도 극심했다.

또한 면세의 특권을 남용(濫用)한 서원전(書院田)의 증가로 인해 국고(國庫)의 수입을 감퇴시켰으며 유생(儒生)들은 관학(官學)인 향교(鄕校)를 외면하고 서원에 들어가서 봉당(朋黨)에 가담해 당쟁(黨爭)에 빠져 향교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 이처럼 서원이 본래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서 벗어나 부정한 정치권력과 부패의 소굴이 된 나머지 결국 고종(高宗) 2년인 1865년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에 의해 전국에 47개소의 서원만 남기고 모두 철폐되기에 이른다.

2) 현대사회와 서원

서원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현존(現存)하는 서원은 이미 그 역사적 의미와 기능을 다한 구시대(舊時代)의 유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서원은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아니 경제적인 여건이 유족(裕足)해짐에 따라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에 의해 철폐된 서원들이 하나 둘씩 복구(復舊)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과거 자기 조상들이 운영했던 서원의 영화(榮華)를 이 시대에 되살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존재나 자기 가문을

과시(誇示)하기 위한 것으로 간단하게 치부(置簿)해 둘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범주에 드는 서원들이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오늘날 서원 본래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잘 살려서 현대 사회에 알맞은 교육과 연수, 시민들의 삶 속으로 다가가는 성공적인 서원도 존재하고 있기에 이 시점에서 서원의 활용문제를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서원은 선현(先賢)과 향현(鄉賢)을 제향(祭享)하는 사우(祠宇)와 청소년을 교육하는 서재(書齋)를 아울러 갖추게 됐다.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초기까지 서재(書齋) · 서당(書堂) · 정사(精舍) · 선현사(先賢祠) · 향현사(鄉賢祠) 등과 문익점(文益漸)을 제사하는 도천서원(道川書院)이 1401년(태종1) 경상남도 산청군의 단성(丹城)에 세워졌다.

이 같은 서원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현재 서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복구되고 있는 서원의 문제를 애써 외면할 수만은 없다.

특히 서원의 양대(兩大)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제향(祭享)과 교육(敎育) 기능 가운데 현재의 서원들은 대부분 제향 기능만 남아 있고 교육의 기능은 사라진 상태에 있다.

그러다보니 서원은 건축물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하며 언제나 문이 닫힌 채 흉물(凶物)처럼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엄청난 재원(財源)을 투입해 복구한 서원을 우리들이 현재처럼 별다른 활용이 없이 방치해 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시급하게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파악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급히 모색해 방치된 서원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몇몇 서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산재(散在)하는 대부분의 서원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전국 및 경기도 향교 서원 현황

1) 향교현황

(1)전국 향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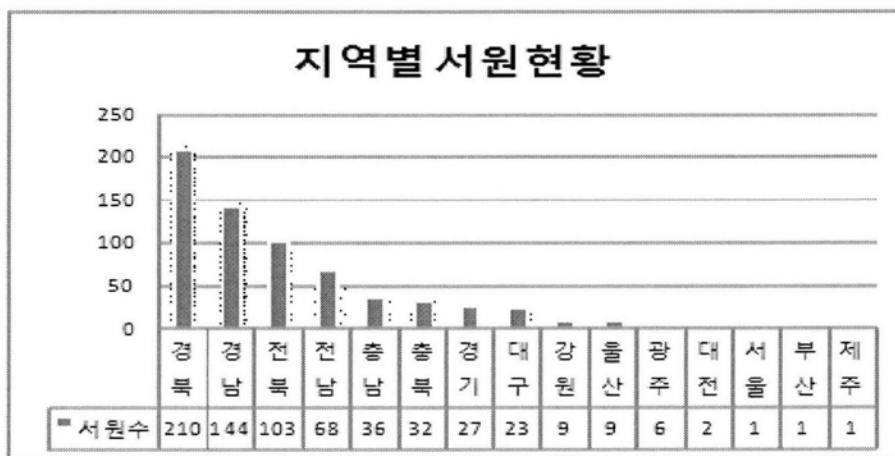
지역별	향교수	비고
서울, 인천, 경기	30	서울(1), 인천(4)
강원	16	
대전, 충남	38	대전(2)
충북	18	
전북	26	
광주, 전남, 제주	32	광주(1), 제주(3)
대구, 울산, 경북	45	대구(3), 울산(2)
부산, 경남	29	부산(2)
합계	234	

(2) 서울, 인천, 경기도 향교현황

향교명	주 소(연락처)
陽川鄉校(양천향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34
江華鄉校(강화향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938-2번지
喬桐鄉校(교동향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148
富平鄉校(부평향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72-8
仁川鄉校(인천향교)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463-83
加平鄉校(가평향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51-2-
高陽鄉校(고양향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3-1
果川鄉校(과천향교)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81
廣州鄉校(광주향교)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206-3
交河鄉校(교하향교)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1-7
金浦鄉校(김포향교)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53-3
南陽鄉校(남양향교)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335
水原鄉校(수원향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교동 43
安城鄉校(안성향교)	경기도 안성시 인지동 362-2
楊根鄉校(양근향교)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817
陽城鄉校(양성향교)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114
楊州鄉校(양주향교)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266
陽智鄉校(양지향교)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379
驪州鄉校(여주향교)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흥문리 193-46
漣川鄉校(연천향교)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45
龍仁鄉校(용인향교)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언남리 335
利川鄉校(이천향교)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408-10

積城郷校(적성향교)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516
竹山郷校(죽산향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314
砥平郷校(지평향교)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343
振威郷校(진위향교)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1030
通津郷校(통진향교)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14-7
坡州郷校(파주향교)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335
平澤郷校(평택향교)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87-26
抱川郷校(포천향교)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23-2

2) 서원현황



(1) 서원 숫자의 증가

최근 자료(2012년 12월 31일 현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존립하고 있는 서원의 숫자는 총 672개(표1 참조) 서원으로 조사되었다. 대원군 시기 서원철폐령으로 남은 47개 사원 가운데 서원으로 남한에 존속되었던 숫자가 22개소였음.에도(표2 참조), 현재 672개소로 다시 복원 혹은 신설되거나 명칭을 변경 하는 등을 통해 증대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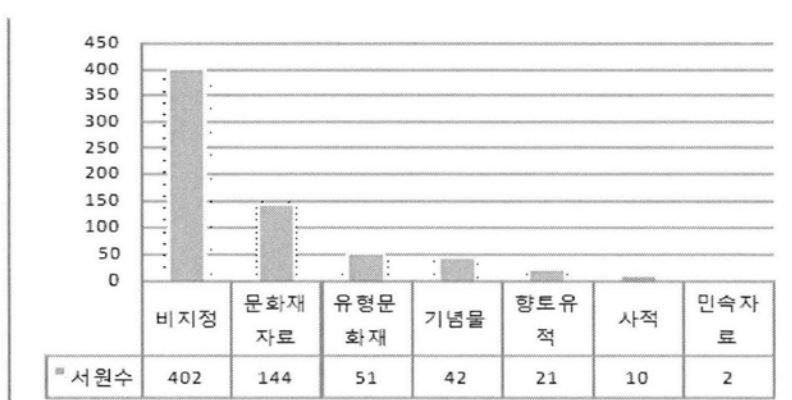
書院名	所在地	年度	配享人物	姓氏
용연서원	경기 포천시 신북면	1691년(숙	한음. 이덕형(漢陰 李德馨 1561-1631)	廣州

(龍淵書院)	신평2리	종 17)	용주 조 경(龍洲 趙 綱 1584-1669)	漢陽
노강서원 (鰲江書院)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1695년(숙 종 21)	정재 박태보(定齋 朴泰輔 1654-1689)	潘南
우저서원 (牛渚書院)	경기 김포시 감정동	1648년(인 조 26)	중봉 조 헌(重峯 趙 憲 1544-1592)	白川
파산서원 (坡山書院)	경기 파주시 파평면 늘노리	1568년(선 조 1)	울곡 이 이(栗谷 李 珥 1536-1584) 청송 성수침(淸松 成守琛 1493-1564) 우계 성 혼(牛溪 成 渾 1535-1598) 절효 성수종(節孝 成守琮 1495-1533) 휴암 백인걸(休菴 白仁傑 1497-1579)	德水 昌寧 昌寧 昌寧 水原
덕봉서원 (德峰書院)	경기 안성시 양성면 덕봉	1695년(숙 종 21)	양곡 오두인(陽谷 吳斗寅 1624-1689)	海州
심곡서원 (深谷書院)	경기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1649년(효 종 0)	정암 조광조(靜庵 趙光祖 1482-1519)	漢陽
사충서원 (四忠書院)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	1725년(영 조 1)	몽와 김창집(夢窩 金昌集 1648-1722) 소재 이이명(疏齋 李頤命 1658-1722) 한포재 이건명(寒圃齋 李健命 1663-1722) 이우당 조태채(二憂堂 趙泰采 1660-1722)	安東 全州 全州 楊州
행주서원 (杏洲書院) 기공사(紀 功祠)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162-1	1842년(헌 종 8)	장렬공 권 울(莊烈公 權 慄, 1537~1599)	安東
대로서원 강한사(江 漢祠)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 201-1	1785년(정 조 9년)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	恩津
현절사(顯 節祠)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1688년(숙 종 14년)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1570~1652)	安東

표 9 대원군 당시 미훼철된 경기도 사원

(2) 문화재 지정추이

유형별	서원수
비지정	402
문화재자료	144
유형문화재	51
기념물	42
향토유적	21
사적	10
민속자료	2
총계	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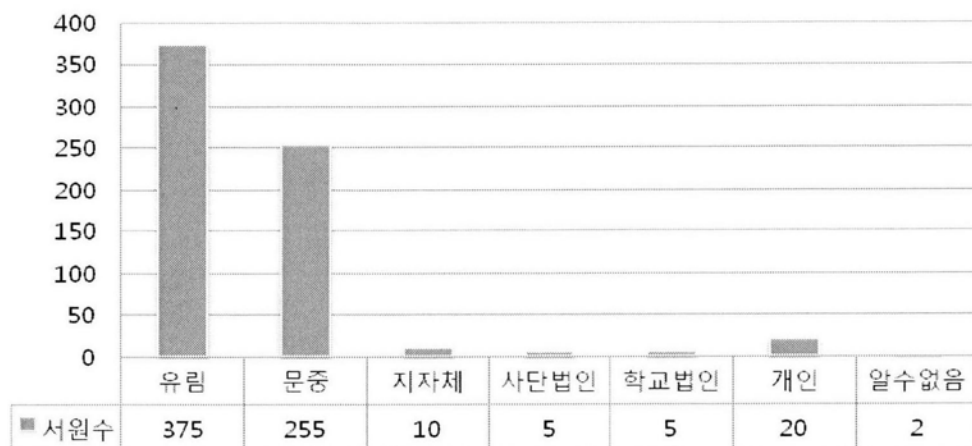


672개소의 현존 서원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은 270개소(사적10, 문화재자료144, 유형문화재51, 기념물42, 향토유적21, 민속자료2)이며, 2010년 12월 기

준 문화재청의 조사통계 당시 문화재지정 총 숫자가 167개에 불과했지만 2년 동안 103개가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은 양상은 점차 확대 추세에 있다고 하겠다. 총 672개소 가운데 비지정 문화재 서원은 402개소로 비지정 서원과 문화재 지정 서원은 60%:40% 정도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서원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확대에 의한 바도 그 영향이 크겠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복원된 서원의 증개축과 관련되어 서원 자체의 재정적 역량으로는 이를 감당키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원이 유림들의 소유가 많은 관계로 이를 공공재로 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서원 개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유림들이 충당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서둘러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경향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서원에서 주향되어 있는 문중에서 재정을 부담하기도 하여 증개축과 향사비용을 조달하기도 하지만 향내 유림들의 자존심과 관련되어 문중이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문화재 지정을 통해 서원 증개축과 향사봉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원 출입자들의 연령 또한 고령화가 가속되어 서원을 관리 운영할 수 없게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되는 경우이기도 하다.

(3) 관리 주체별 서원의 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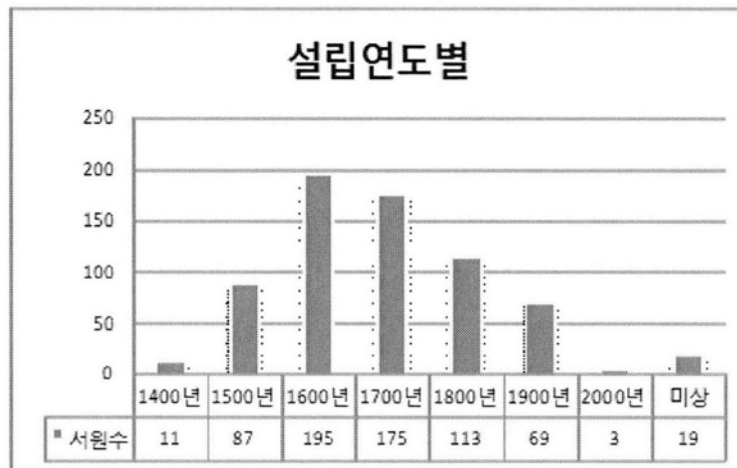
현재의 서원 형태 조사에서 이를 관리 주체별로 조사해 볼 때 유림이 관리하는 곳은 375개소(65%)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문중으로 255개소(38%)에 달했으며 그 다음으로 지자체 관리 10개소, 사단법인 5개소, 학교법인 5개소, 개인관리

20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유림이라 할 때는 소유권과 관리권을 지역 유림들이 가지고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문중이라 할 때는 단일 문중에서 설립한 서원이거나 혹은 유림들이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주향의 후손들이 소유권과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지자체의 경우는 소수서원이나 도산서원처럼 관리사무소를 서원에 두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경우와 새로 복원 혹은 중수 되는 과정에서 관리 운영이 자치단체로 기부채납 되거나 소유권만 자치단체로 이관시킨 경우를 말한다. 사단법인으로는 5개소(사충, 설봉, 송록, 장절, 충현서원)가 있으며 학교로 귀속된 곳 또한 5개소(병산, 역동, 구계, 화산, 백학서원)이며 20여 개소는 개인 소유로 되어있거나 관리하고 있다.

(4) 최초설립연도별 통계

연대별	서원 수
1400년	11
1500년	87
1600년	195
1700년	175
1800년	113
1900년	69
2000년	3
미상	19
총계	672



현존하는 서원의 설립연도에 대한 현황을 년도별로 분류한 자료이다. 대부분의 서원들이 명종(1534~1567) 년간부터 임진왜란을 거쳐 숙종(1661~1720)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만조 교수의 서원 첩폐령 이전의 서원 사우 현황표에 의하면 순조(1790~1834) 년간까지 서원 471개소, 사우 492개소로 총 사원(祠院)이 93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서원수(672개소)와 미복원 서원수(273)를 합치면 944개소에 이르고 있어 신설된 서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우(祠宇)가 서원(書院)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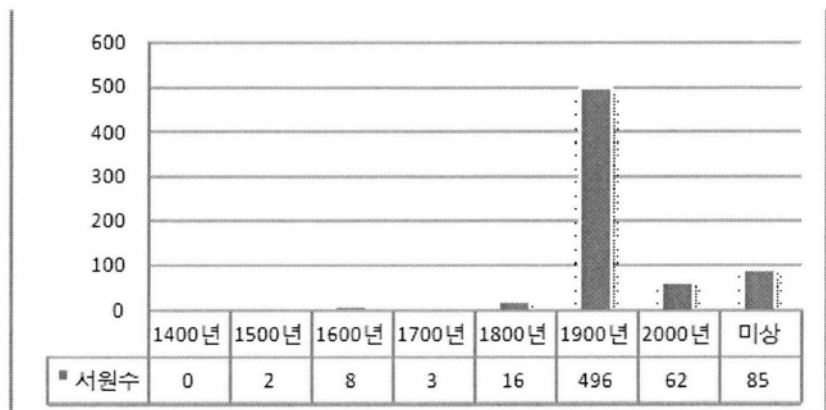
서원 첩폐령 이전의 서원 사우의 합계자료(정만조 교수, 한국 서원의 역사에서 인용) *()는 사우

경상	전라	충청	경기	황해	강원	평안	함경	계
----	----	----	----	----	----	----	----	---

명종	12(5)	3	1(2)	1(2)	1	1	2(4)	1	22(13)
선조	25(3)	3(9)	7(3)	6	8(1)		3(4)	1(2)	63(22)
광해군	12(3)	5(4)	6(1)	2	1	2		1(1)	29(9)
인조	11(9)	6(7)	5(1)	2(2)	(1)	2(2)	1(2)	1(1)	28(25)
효종	10(2)	5(3)	2(1)	4	3	2(3)	1	(1)	27(10)
현종	14(6)	8(4)	8(3)	5(2)	2	4	4(1)	5(3)	46(23)
숙종	76(61)	27(40)	27(25)	19(8)	5(8)	4(8)	6(15)	2(9)	166(174)
경종	2(5)	3(4)	3(2)		(1)	(2)	(4)	(2)	8(20)
영조	6(46)	4(22)	1(14)	1(7)	1(16)	2(14)	1(17)	2(9)	18(145)
정조	(2)	2(1)		(3)					2(6)
순조이후				1				(1)	1(1)
미상	5(9)	1(14)	(6)	(3)	1(3)	(7)		(1)	7(43)
계	173(151)	77(108)	60(58)	41(28)	22(30)	13(40)	18(47)	13(30)	417(492)

(5) 현존 서원의 복원 및 중수 관계 통계

연대별	서원수
1400년	0
1500년	2
1600년	8
1700년	3
1800년	16
1900년	496
2000년	62
미상	85
총계	672



철폐된 서원 사우들은 대원군이 하야한 후 다시 복원 혹은 중수되기 시작하여 대부분의 서원들은 1900년대에 복원 혹은 중수되었다. 표에 나타나듯이 1900년대에 복원 혹은 중수된 서원은 496개소에 달하는데 이를 시기별로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78개소가 복원되고 해방 후부터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1969년까지가 109개소, 1970년부터 1999년에 이르는 동안 295개소의 서원이 다시 복원되거나 중수되었으며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64개소가 복원 정비되었다.

(6) 경기지역 서원 현황(2012.12.31. 현재)

서원명	서원명	소재지	문화재 지정여부	관리주체	최초 설립연도	훼손 여부	최후 중수
-----	-----	-----	----------	------	---------	-------	-------

沂川書院	기천서원	경기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문화재자료	유림	1580		1978
鷺江書院	노강서원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산146-1	기념물	반남박씨	1695	비취철	1969
大浦書院	대포서원	경기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산32	향토유적	남원양씨	1973		1976
德峰書院	덕봉서원	경기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유형문화재	해주오씨	1695	비취철	
德陽書院	덕양서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33	비지정	유림	2002		
梅山書院	매산서원	경기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산321	향토유적	유림	1456		1987
文憲書院	문헌서원	경기 오산시 내삼머동 753-2	비지정	유림	1550		1991
沙川書院	사천서원	경기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24	비지정	유림	1712		1999
四忠書原	사충서원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 100-2	비지정	사)사충서원	1726	비취철	1968
雪峯書院	설봉서원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2709	향토유적	사)설봉서원	1564		2007
蘇山書院	소산서원	경기 시흥시 신천동 산12	향토유적	진주하씨	1455		1995
水谷書院	수곡서원	경기 양평군 지제면 수곡631	향토유적	안동권씨	1874		1930
深谷書院	심곡서원	경기 용인시 수지읍 상현동	유형문화재	유림	1650	비취철	
安谷書原	안곡서원	경기 화성시 서산면 상안리 586	향토유적	상주박씨	1616		1976
玉屏書院	옥병서원	경기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산210	향토유적	유림	1649		1981
龍江書院	용강서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비지정	음.성박씨	1686		1980
龍淵書院	용연서원	경기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유형문화재	유림	1691	비취철	
龍州書院	용주서원	경기 파주시 월릉면 덕은리 291	향토유적	유림	1598		1997
牛渚書院	우저서원	경기 김포시 감정동 492	유형문화재	유림	1648	비취철	
雲溪書院	운계서원	경기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산7	문화재자료	평양조씨	1594		1932
臨漳書院	임장서원	경기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향토유적	임상준	1700		1998
紫雲書院	자운서원	경기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기념물	유림	1615		1970
忠烈書院	충렬서원	경기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유형문화재	유림	1576		1972
忠賢書院	충현서원	경기 광명시 소하2동	기념물	유림	1658		1676
坡山書院	파산서원	경기 파주시 파평면 늘노리	문화재자료	유림	1568	비취철	1966
杏洲書院	행주서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문화재자료	유림	1841	비취철	1999
花山書院	화산서원	경기 포천시 가산면 방죽리 산16-1	기념물	유림	1625		1971

4. 향교 서원에 대한 가치 재인식

1) 서원의 가치

서원은 앞서 말했듯이 향촌사회의 교육과 교화를 담당하던 곳이다. 학자의 자율성에 바탕하여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양성하며 인간을 주체적으로 탐구하는 동양경전을 통한 내면의 진리를 탐구하던 인격도야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인적 인격을 완성해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시했던 교육방식은 선현을 본받는 것이었다. 인격교화의 대상으로서 선현에 대한 경모의 마음가짐은 물론 향사(享祀)를 통해 현존하는 정신적 거울로 선현을 대했다. 아울러 지방 풍속(風俗)과 예속(禮俗)을 교화하는 지역문화 중심이기도 했다. 향촌 사회에 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질서를 재편성하는 중심이었으며 향촌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간 정신적 지주였다고 할 수 있다.

각 서원들은 학령과 원규를 갖추어 자율적으로 준수하게 하였고 비형식적인自得(自得)교육을 중요한 교육방식으로 삼았다. 서원은 주로 선현들의 연고지에 건립되었다. 출생한 곳이거나 목민으로서 선정을 베풀던 곳 혹은 정치적 수난으로 귀양을 갔던 곳이나 사망한 지역에 사원이 건립되었다. 중국 서원의 영향을 받아 자연 경관의 일부로서 서원이 건축되었으며 최대한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배산임수한 지역에 건립하였으며 대부분 경사를 이용해 주변경관을 건축물 내부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 즉 천인합일적 사상에 바탕하여 자연이 인격감화에 미칠 수 있는 최대한의 건축적 배려였다고도 할 수 있다.

2) 서원의 공간구성 및 시설현황

서원은 기본적으로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을 위주로 하여 다양한 부속건물로 구성되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공간구분	건	물
진입공간	㉠ 홍살문, ㉡ 하마석(下馬石), ㉢ 외문(外門), 누문(樓門) 및 누(樓)	
강학공간	㉠ 강당, ㉡ 재사(齋舍), ㉢ 장판각, 장서각	
제향공간	㉠ 신문(神門), ㉡ 사당(祠堂)	
부속공간	㉠ 고직사, ㉡ 전사청, ㉢ 제기고	
시설물	㉠ 생(牲)단, ㉡ 관세(盥洗)위, ㉢ 망례위, ㉣ 석등, 정료대	

강학과 제향기능 이외에 서원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도서관과 출판 기능을 갖춘 사립학교라는 점이다. 제지기술과 인쇄술의 발달에 의한 도서수집, 출판, 보존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 거점이었다.

3) 서원의 국가 유산화 필요성

중국에서의 서원은 관학적 성격이 강했으며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각종 책들을 보관하는 도서관적 기능이 강했다. 반면에 한국의 서원은 사액(賜額)이라는 후원 정책은 있었으나 철저하게 사립학교의 형태를 취했다.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시대에 전국에 700개소의 서원이 산재했으며 직업교육이 아닌 인문교육을 통해 전인적 인격체를 양성하던 교육방식은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지식교육체계였다고 하는 말은 근간에 지어진 말은 아니다. 400여년 전에 보편적 인성과 사회인으로서의 덕목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킨 교육기관인 700개의 사립학교가 한반도에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교육혁명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명문 대학입학과 고시로 대변되는 교육제도의 전형이 바로 과거시험을 준비하던 서원의 교육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리라는 상상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즉 한국 교육열의 근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원은 현재에도 그 필요 충분한 의미를 갖추고 있다.

첫째는, 역사적 의미로서 단순 서원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서원이 가지고 있던 강학정신과 의례정신이 녹아있다는 점이다. 비록 갑오경장으로 전통적인 교육제도가 완전히 변모는 되었지만 선현봉사라는 중요한 서원 본연의 전통은 그대로 면면히 계승되고 있고 유림활동의 근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는, 서원태동에 바탕이 되었던 철학 즉 성리학적 인간본성의 연구에 대한 부분이다. 지역 학자들과 유림을 중심으로 각 지역이 배출한 선현들의 연구를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확충해 나가는 일의 중심으로서 서원의 존재를 자산화하는 부문이다.

셋째, 한국서원의 세계사적 존재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세계자산화 노력이다. 근래에 들어 한국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일련의 작업이 진행 중이다. 우선 한국의 서원 가운데 진정성(Authenticity), 완전성(Integrity),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갖춘 9개 서원을 세계유산등재 1차 목표로 추진하고 이를 확대하여 전국의 서원으로 확대해 간다는 취지하에 201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4) 경기서원의 정체성

첫째, 기호학의 본고장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자운서원(율곡), 파산서원(우계 성혼), 대로서원(송시열), 노강서원(박세채와 박태보)을 중심으로 충청 호남 황해도로 확대되어 가게 된다.

둘째는 개혁정신의 진원이라는 특징으로 조선건국을 통한 국가개혁의 발원이었거나(정도전 문원사) 훈구세력에 대항한 사림정치의 발로지였다(조광조 용인 심곡서원, 기묘명현 박세희를 모신 화성 안곡서원)

셋째는 구국과 위정척사 운동의 구심점이라는 점이다.

구국의 선봉에 섰던 조중봉(우저서원)과 권율(행주서원), 이항로(포천화산서원), 이덕형(용연서원, 서희 장군이(설봉서원)한 축이요, 또 한축은 한말 위정척사의 구심점이었던 이항로(노산사, 최익현(채산사)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다.

영남이 주로 사승관계에 따른 계보 중심의 서원이 주종이라면 경기 서원의 정체성은 기호학적 성리관의 현실주의적 특징이 중심 되면서 실학으로, 또는 실천 철학으로 연계되어가는 하나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경기 서원 관리운영의 새로운 방향 모색

1) 서원 운영 조례의 제정 필요(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들에 대한 보존과 운영에 관한 조례들이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나 규칙의 경우 대부분이 입장료에 관련된 것이거나 시설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제 범주의 조례에 국한하고 있다. 즉 적극적인 서원 관리 운영과 활용, 프로그램 지원 등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아닌 보존 관리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근래 경기도(경기문화재단)에서 도차원의 향교 서원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내용을 정비하고 있는 일은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조례는 앞서 살펴보았던 현재의 관련 조례처럼 시설사용을 규제하거나 단속하기 위한 강제적 조례가 아니라 향후 서원 향교가 지역문화 자산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 내용을 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에서는 도차원의 조례제정을 먼저 추진하여 도내 서원 향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정체성 고양을 위한 기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조례제정 프로젝트는 어느 지역보다 진일보된 미래지향적 서원 향교 발전 방안을 담고 있어 경기도와 도내 자치단체를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던져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서원의 기부채납 혹은 공익법인으로의 전환(서원의 적극적 참여)

서원을 유림이나 문중, 혹은 개인의 재산적 가치로 판단하여 개방과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원이나 문중 단일 선조를 배향하는 서원에 대해서 공공재로 판단토록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림이 소유한 서원 가운데 정상적인 서원시설을 갖춘 서원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은 이미 공공화 된 민족 교육문화 자산의 영역에 이미 편입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유림들이 재정부족과 노령화,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할 수 없거나 서원 본연의 기능으로 운영할 수 없을 때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서원의 가치를 향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경우 유림들의 동의하에 제향공간을 제외하고 기타 공간에 대해 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여 관리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거나 공공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법인으로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서원의 관리운영에 사회적 공익적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은 서원이 모시고 있는 선현들의 정신적 자산과 유산을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서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필요

서원은 더 이상 유림들만의 자산은 아니다. 규모면에서 실질적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유림들이나 후손의 힘만으로 향교와 서원을 유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포천시청과 관련 유림, 이를 교육현장에 활용하려는 교육청과 문화원, 문화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운영에 참가해야 이를 보존할 수 있을뿐더러 극대화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서원은 유림들이 겨우 향사나 지낼 뿐 유지 관리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

이를 위해 일부지역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지역 문화자산을 보존 활용하기도 하고 제향을 제외한 모든 시설들을 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여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을 하거나 문화단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활용단계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우선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서원 향교와 지역 네트워크는 가장 1차적 보존활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서원간 1:1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매결연 및 부설 교육장으로 활용하거나 대학 혹은 대학내 관련기관(국문학, 사학, 철학, 한문 등)과 1:1 서원 네트워크 혹은 지역내 1행정기관과 서원간의 1:1 네트워크 등을 통해 서원 사주의 청결유지와 보존 활용이라는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갈 필요가 있다. 근간에 지역사회 출

신의 정년퇴임 교수를 서원장으로 초빙하여 상설 강좌를 개설하거나 일반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들이 엿보이는 서원들이 있다.

4) 서원시설의 위탁에 대한 유림 내부적 합의의 필요성

많은 유림들은 서원이 존현(尊賢)의 공간인 관계로 외부인들의 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근암서원이나 설봉서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서원의 공공화는 서원 관리운영의 효율화뿐만이 아니라 서원이 받들고 있는 분들의 선양에 훨씬 유리한 측면이 많다. 향사시설을 제외한 서원 공간에 대한 운영의 위탁이라는 항목을 서원 유림들은 눈여겨 보아야 한다. 서원답의 적은 소출로 제향도 어려운 현 상황에서 춘추향을 제외하고는 자물쇠로 잠가놓는 서원으로는 국민들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어렵다. 목재건축은 갈고닦고 사람의 훈기가 없이는 보수만 반복할 뿐이다. 자치단체, 문화원, 문화예술단체, 학자, 교육기관 등과 협력적 위탁은 서원의 수명을 오래 끌고 갈 것이다.

6. 나가는 말

전통서원에 대한 문화코드로의 인식전환 필요

옛날에 왕조에서 사액서원이라는 당근으로 교육열을 채찍질 했다면 현대사회에서 서원을 중앙과 지방의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이미 교육기구에서 문화코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성을 갖춘 자랑스러운 문화코드를 구시대의 유물로 내버려두는 일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손실이라고 하겠다.

서원의 관리운영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일이다. 이미 가장 중요했던 양사의 기능이 없어진지 오래인 만큼, 관리운영자로 합의된 소수의 유림들이 서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수하고 부속된 전답의 소출을 받아 봄가을로 향사를 올리면 사실은 그것으로 끝일 수도 있다.

서원의 세계유산등재 추진 운동은 망각되고 정체된 우리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찾아내어 국가적 자긍심으로 삼고 그 본래의 기능이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승계되어가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관리 운영의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관리 운영의 대안을 찾아가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서원 관리와 운영의 축이 변화하고 있다. 이미 관리 측면은 문화재적인 국가적 차원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으며 단순한 향사만을 위한 운영조직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엄중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관리 측면에서 문화재보호라는 제도적 측면이 보강되어가듯이 운영 측면에서도 지차제와 사회단체, 유림단체, 문화예술단체, 교육기관 등과의 적극적 협업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

나 규칙 제정 등을 통해 유림들의 과도한 노고도 줄여들여야 하고 모두가 협력해서 문화자산으로 양성해 가는 문호(門戶)를 열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경기국학센터의 건립 필요

경기도에 기호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 및 활용 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에 거론 되었다. 2012년 사적으로 지정된 자운서원은 기호학의 진원지이며 기호학이 위정척사의 호국 의병운동, 경기실학으로 확대되어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충청도에서는 천안에 한국기호학연구소를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고 논산시 또한 김장생, 김집을 중심으로하는 대대적인 기호유교 선양기지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검토를 하고 있다. 경북이나 경남에서는 한국국학진흥원과 남명학연구소 등 위대한 사상가를 중심으로한 연구와 편찬, 사회계도 및 세계적인 한국철학 거점으로서의 기구를 설치하여 대대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이를 세계유교 문화축제나 남명축제 등과 연계하여 한국인문학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록 늦었지만 경기 유교문화의 중심 거점이 건립되어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으로 거점을 옮겨가고 있는 기호학을 세계화할 수 있는 경기국학센터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으며 한국 지성사적 맥락에서 경기 북부에 이를 건립하는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 경제 문화융성- 서원 인재 양성의 역사에 근원

한국의 서원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의 정신과 교육적 이상의 귀중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의 원천은 한국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며 우리 국민들이 역사의 고비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일념으로 교육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근간을 서원의 교육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성교육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오늘날에도 이어받을 뜻 깊은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서원과 향교를 중심을 한 전통시대의 교육문화자산은 제도적으로 보면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정신적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들 피속에 남아있는 역동적 개혁과 사회발전,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 동방의 유태인이라 비유하는 것처럼 재빠른 산업화와 마케팅은 결국 한국 서원문화가 지향했던 3가지 정신의 현대적 표현이며 지금도 역동적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서원이 전통시대에 국가를 이끌어가던 지식인들의 용광로 였다 할 수 있다. 서원의 기능이 전통시대와 같을 수는 없지만 역사적 자긍심을 확인할 수 있고 현대

사회에서도 함께 더불어 갈 중요한 문화코드의 하나로서 자리매길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전통교육과 서원(書院) 목적하던 정신적 기반 즉, 인문학에 바탕한 휴머니즘(仁)과 사회정의(義)와 국내외의 평화적 질서구축(禮), 운영주체인 인간의 청빈과 검소 나아가 환경생태 보호(智)를 바탕으로 세계사에 기여(信)할 때 인류 평화의 주체(大同和平)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꿈꾸는 새로운 교육 계몽운동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향교·서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방안

윤 유 석(한국의국어대학교 교수)

<목 차>

1. 지방자치단체와 조례제정권
2.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 현황
3. 관련 조례 조항의 내용 분석
4. 향교·서원 지원 조례 제정의 목적과 방향
5. 향교·서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1. 지방자치단체와 조례제정권

1) 조례의 의미

- 일반적으로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한 형식을 말함.
- 조례는 불특정 사건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이며, 의회가 정한 법률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에 의하여 정립된 일반적·추상적인 성문의 법규범을 의미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함.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근거

- 지방문제는 해당 지방주민이 판단하고 자기책임으로 규율하도록 하기 위해
- 규범을 만든 자와 규범을 지키는 자 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 자치입법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형성임무를 실현시킴으로써 자치사무를 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자치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 형성의 자유를 갖음.

- 조례제정권은 의회입법우위의 원칙과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수단의 하나로써 주민들이 참여해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자기규율의 표현
- 조례제정권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위해 일방적이고도 고권적인 자치법규를 정립하는 권한으로서 지방자치에 있어 핵심적인 보호영역에 속함.
- 헌법 제11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4) 조례의 속성

- 조례는 국가가 아니라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공공단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류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여타의 법규명령과 구별
- 또한 조례는 지방의회에 의해 제정되는 것으로, 지방의회는 자신의 지역적 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적 입법자로서의 지위를 갖음.
- 때문에 조례는 본질적으로 의회의 법률과 구별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속성을 지님.
- 따라서 조례 제정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모든 활동과 마찬가지로 ‘행정’이며, 헌법상의 법치주의 원칙의 구속 하에 있는 것임.

5) 조례제정권의 한계

- 조례보다 법령이 우위인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름.
- 하지만 행정실제에 있어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거나 조례로 규율하려는 사항이 이미 법령에 있는 경우, 오늘날에는 조례의 자주적 입법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조례제정권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 대법원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규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때는 조례에 의한 별도의 규율 허용된다고 보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 지방자치단체의 서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현재 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서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향교에 대한 조례는 부재함.

<표> 지역별 서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지역	조례명	제정일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	2004.7.5.
경기 이천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2007.7.2.
경북 안동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2010.1.7.
전남 장성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11.5.13.
충남 서천	서천군 문헌서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2.9.28.

2) 조례의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서원 관련 조례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남.

- 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
 -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
- ② 지역의 인재 양성 및 지역문화 발전
 -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③ 서원의 운영 및 관리
 -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 서천군 문헌서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3. 관련 조례 조항의 내용 분석

3.1. 조례 조항의 주요 내용

1)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구강서원, 설봉서원, 문헌서원은 서원이 수행해야하는 사업을 규정함.
-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춘추 제향 봉행
 - 주민교육 및 교화사업
 - 선인들의 유적 발굴 및 선양사업
 - 서원의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서원의 시설 관리·운영
- 시민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교양강좌
- 각종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 규정

- 서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

○ 시설 이용 및 관람에 관한 사항 규정

- 관람료의 구분, 사용, 반환, 감면, 판매 방법 등을 규정
- 관람을 위한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게시사항 등을 규정
- 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 거부·제한 또는 퇴장 사항 규정

○ 사용과 관한 사항 규정

- 단체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
-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 사용료의 납부·면제·반환에 관한 사항 규정
-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설비와 철거에 관한 규정

○ 자료의 관리 및 반출에 관한 규정

- 단체장은 모든 자료관리를 총괄하며, 소속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음.
- 자료의 반출은 불가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반출 가능

○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위탁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
- 관람료 징수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한 도산서원(안동)을 제외한 나머지 구강서원(울산), 설봉서원(이천), 문헌서원(서천), 필암서원(장성)의 조례에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3)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업을 수행하는 구강서원, 설봉서원, 문헌서원의 경우 위탁 운영 사항 규정

- 위탁 운영의 기간, 성격,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 위탁 기간은 2-3년이며, 재수탁 가능
 - 매년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영리 목적의 사업은 할 수 없음.
- 수탁자의 의무사항 규정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
 - 수탁재산의 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및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 변경 불가, 필요한 경우 단체장의 승인 필요
 - 위탁운영권의 양도 또는 전대 금지 규정
- 위탁계약의 취소 및 해지·청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규정
 - 위탁 취소의 경우, 장비 및 비품의 반환에 관한 사항 규정
-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규정
 -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과 멸실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의무 규정
 - 손해보험 가입 증서의 제출 사항 규정
- 수탁자에 대한 보고 의무 및 관계공무원의 수시 점검과 지도감독에 응해야 함을 규정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에 관한 사항 규정
-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규정
-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5) 편의시설 등에 관한 규정

- 관람자와 사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 가게, 식당, 간이 휴게실
 - 기념품 판매점
 - 기타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음.

6)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규정

- 서원 내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규정
- 관람자 및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나 수목의 손상이 있을 경우 동일하게 변상하거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함을 규정

3.2. 서원 관련 조례 조항의 분석

1) 조례 조항 비교

- 위 3장의 조례의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조례 조항의 항목을 다음의 6가지 분야로 나누어 서원별로 조항의 유무를 비교함.
 - 수행사업 관련
 - 관리·운영 관련
 - 위탁 관련
 - 운영위원회 관련
 - 편의시설 관련
 -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관련

<표> 서원 관련 조례 조항의 항목 비교

조항 항목		구강서원	설봉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문헌서원
수행사업 관련		○	○	-	-	○
관리 운영 관련	운영 주체	○	○	-	-	-
	시설 이용 및 관람	-	○	○	○	○
	사용	-	-	-	○	○
	자료의 관리 및 반출	-	-	-	○	
	운영비 지원	○	○	-	○	○
위탁 관련	위탁운영 기간 및 성격	○	○	-	○	○
	수탁자의 의무사항	○	○	-	○	○
	위탁의 취소 및 청문	○	○	-	○	○
	변상책임	○	○	-	○	○
	보고 및 지도감독	○	○	-	-	○
운영위원회 관련		-	-	-	○	-

편의시설 관련	-	-	-	○	○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	-	-	○	○

2) 조례의 유형

가. 자체운영형

- 자치단체가 서원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람과 사용 규정을 정하는 경우로, 관람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
- 관람료와 사용료, 관람과 사용의 조건과 제한 등의 사항 규정
- 도산서원이 이에 해당함.

나. 위탁운영형

- 자치단체가 위탁기관을 두고 서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로, 위탁과 수탁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
- 구강서원, 설봉서원, 문헌서원, 필암서원이 이에 해당함.

3.3. 서원 관련 조례의 한계와 시사점

1) 한계

- 단일 서원의 운영규정에 대한 시·군·구 차원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있으나 지역의 향교와 서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는 부재함.
- 관람과 사용, 위탁과 수탁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이며 중장기 발전과 활성화 위한 지원 규정이 부재함.
- 관람자, 사용자, 위탁자, 수탁자가 자치법규를 지켜야하는 주체인 경우가 많으며,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할 문중, 지역유림, 지역주민, 민간, 지자체의 행위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부재함.
- 도산서원을 제외하고 위탁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고, 지원과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부족함.

2) 시사점

- 자치법규를 통해 서원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하려는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과 시도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서원을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민의 사회교육, 인성교육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면서 서원의 기능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계승하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현재 5개의 서원을 대상으로 시·군·구 단위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644개 서원에 대한 각각의 자치법규가 만들어지는 것은 비효율적임.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서원의 지원과 관리·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자치법규가 필요함.
- 서원뿐만 아니라 향교를 포함해 정신문화유산이자 교육문화유산인 향교와 서원이 현대 사회에 맞게 기능하는 한편,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활성화시키는 지원정책과 이를 위한 지원조례가 마련되어야 함.

4. 향교·서원 지원 조례 제정의 목적과 방향

1) 목적

가. 추진배경

<사회적 배경>

-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인한 정신적 피폐함과 무질서가 사회문제로 이어지면서 유교식 인성교육과 사회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음.
- 주5일 근무제, 방과후 학교와 같은 여가활동 시간이 많아지면서 의미 있는 것을 배우면서 정신적인 체험을 하려는 문화적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 고령화 사회,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나이와 인종에 상관없이 자신을 수양함으로써 가족, 학교, 사회,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과 수련이 제공되어야 함.

<정책적 배경>

- 1995년 이후 정부는 유교문화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교제제작 및 제공, 유교문화체험 홈페이지 구축, 교육활동 지원 등의 정책을 수행하는 한편 『우리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향교와 서원 기능의 현대적 활용방안』(2001) 등 향교·서원의 현대화를 위한 정책과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음.

- 이를 계기로 경기도 일부 향교에서 청소년 인성교육이 실시되고 유림교양교육을 위한 명륜대학이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례로 지난 2007년 문중과 지역유림, 지자체의 후원으로 복설된 이천시의 설봉서원은 운영사무국과 설봉대학이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는 지역의 전통문화전승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향교와 서원이 지역사회의 교육기관이자 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주목한 경기도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향교와 서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음.
-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향교와 서원이 일관된 방향으로 지역사회와 지역민에게 사회교육과 인성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의 자치법규가 필요함.
- 또한 평가와 벌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최근 문제가 된 보조금 횡령 및 유용에 대한 문제를 법적으로 방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전통 종교시설인 사찰의 경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종교관련 예산의 약 40%를 지원받고 있음. 이에 비해 향교와 서원은 전통종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교 분야 지원은 약 10%에 불과함. 향교·서원의 경우도 보존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
- 법률제정을 위한 국민적 여론과 공감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침체되어 있는 향교와 서원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조례를 통한 지역의 자발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나.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

<조례 제정의 취지>

- 향교·서원의 효과적인 지원과 운영에 관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
- 향교·서원의 지원에 따른 운영의 효과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 향교·서원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향교·서원에서의 지역문화 활성화가 이루지도록 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

- 향교와 서원이 ‘유교’라는 정신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

- 향교와 서원의 사회교화·인재양성 기능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민의 인성 개발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2) 제정 방향

가. 「지방자치법」에 기초하여 지방자치행정을 위한 조례 제정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한 조례 제정
- 「지방자치법」 제 9조 2항 5호에 근거한 조례 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나.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조례 제정

-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
 - 시·군·구 단위의 개별 향교·서원에 대한 자치법규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역별 자치법규 제정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에 향교와 서원의 수량이 적으므로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에 포함시켜 광역권 단위의 조례 제정도 검토 필요
 -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군·구 단위의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가는 방식의 조례 제정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제정
 - 유교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지역적 개성과 특성, 고유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 제정

- 지역에 따라 향교와 서원의 현대적 계승의 목적이 다를 수 있음.. 건축 문화유산, 정신문화유산, 교육문화유산 등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담보하고 있는 향교와 서원을 자치조례를 통해 어떻게 계승발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역유립은 물론, 지역민과 연구자, 전문가들 간의 공통된 목표설정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기호문화권이었던 경기도는 건축문화유산의 가치보다 정신문화·교육문화 유산으로써의 가치를 더 보존하고 있으며, 더우기 5년 동안 지원사업을 하는 동안 서원이 단순 관람이 아닌 교육, 관광, 행사, 탐방 등의 분야로 활성화 되고 있음.
-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 향교·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

다. 향교·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

- 향교·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지역사회의 문화선도와 인재양성의 역할을 했던 향교와 서원의 전통적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
- 향교·서원의 지원을 위한 조례
 - 광역자치단체가 향교·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유립은 이를 어떻게 사용하고,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등에 대한 조례 제정
 - 재정 지원, 문화해설 지원, 홍보 지원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지원 제공

라.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조례 제정

- 행위주체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원칙
 - 지원주체인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자발적인 참여
 - 운영주체인 문중과 유립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 지역사회 문화주체로서의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

3) 기대효과

- 지역별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추진
-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행정적 기준 제시
-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한 계획, 지원, 운영, 평가 체계의 구축
- 일관되고 효과적인 지원사업의 추진

5. 향교·서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1) 조항의 구성

- 조항은 총론 부분, 지원 부분, 운영 부분으로 구성됨
- 총론에서는 조례의 목적, 대상, 정의, 기본원칙,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지원에서는 지원을 위한 계획, 홍보 및 교육, 사업의 내용, 지원사업의 선정, 평가 및 포상, 사업비의 환수, 지원사업의 운영, 시·군 기준마련 및 사업 운영, 문화관광해설사의 파견, 교류와 협력의 촉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운영에서는 지원비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수행자의 의무사항 외에 일반인들의 준수사항과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조항의 주요 내용

-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 추진의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
-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
- 사업의 선정, 운영, 사업비의 환수,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시·군의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문화해설사의 파견과 교육·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권고함.
- 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지원비를 받아 수행하는 사업수행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
- 향교·서원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준수사항과 변상책임을 규정함.

구분	조항	내용
총칙	목적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향교·서원을 지역민의 사회교육과 인성교육의 장소이자 지역문화의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 규정
	대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향교와 서원을 규정
	정의	‘향교’, ‘서원’, ‘지역문화’, ‘활성화’ 등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
	기본원칙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의 기본원칙 규정(아래 세부내용 참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가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
지원	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함을 규정
	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
	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유림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음을 규정
	사업의 내용	향교·서원 활성화에 해당하는 사업의 항목을 규정(아래 세부내용 참조)
	사업의 선정	도지사는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해 매년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고, 시장·군수가 공모계획에 부합한 사업계획을 작성해 신청하여야 함을 규정
	사업의 운영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사업의 계획, 선정, 평가, 환수와 관련된 사업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
	사업비의 환수	도지사가 사업비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평가 및 포상	도지사는 매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자를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
	시·군 기준마련 및 사업운영	- 시장·군수는 자체 실정에 맞게 사업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
	문화관광해설사의 파견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시·군에 문화관광해설사의 파견을 권고할 수 있음을 규정
	교류와 협력의 촉진	도지사는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시·군에 지역 교육청, 문화예술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권고할 수 있음을 규정
	협의회 운영	도지사는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시·군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

		음을 규정
운영	사업수행자의 의무사항	지원비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수행자의 의무사항 규정(아래 세부내용 참조)
	준수사항	향교와 서원 내에서의 행하여서는 안 되는 사항을 규정
	변상책임	고의나 과실로 향교·서원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함을 규정

3) 주요 조항의 세부내용

가. 기본원칙

-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은 지역사회와 지역민을 위한 교육과 문화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역 유림과 문중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함.
- 지역 유림 대표 혹은 문중 대표가 사업의 책임주체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향에 있어 유림과 문중의 전통성과 독립성을 보장함.

나. 사업의 내용

① 유교문화 교육사업

- 강학 및 한문 교육사업
- 수양 및 인성 교육사업
- 예절 및 사회 교육사업
- 유교 문화예술 교육사업
- 역사와 인물 교육사업
- 전통무예 전통놀이 교육사업
- 전통과 현대의 융복합 교육사업
- 찾아가는 유교문화 교육사업
- 기타 유교문화 관련 교육사업

② 유교문화 계승사업

- 전통의례 계승 사업
- 향약, 향음, 주례, 향회 등의 생활의례 사업
- 유림 및 종가의 생활문화유산 계승 사업
- 기타 유교문화의 계승과 관련된 사업

③ 문화체험사업

- 향교·서원 생활 체험(서원 스테이, 서원 리빙)
- 선비문화 체험
- 유림 및 종가 생활 체험
- 전통의례 체험
- 향교·서원 답사
- 기타 유교문화 체험과 관련된 사업

④ 인력양성사업

- 향교·서원 경영자 양성사업
- 유교 교수 양성사업
- 한문강사(훈장) 양성사업
- 유림지도자 양성사업
- 유교문화체험 지도자 양성사업
- 기타 유교문화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

⑤ 문화행사사업

- 유교문화예술 공연 사업
- 한시한문 등의 경연 사업
- 기타 유교문화행사와 관련된 사업

⑥ 연구개발사업

- 향교·서원 문화유산 조사·발굴 및 연구 사업
- 도서 발간 및 수집 사업
- 기타 유교문화유산의 연구와 개발에 관련된 사업

다. 사업수행자의 의무사항

- 사업 수행의 경과와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의 회계정산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홍보 및 교육 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상호 협조와 정보교환을 위해 협의회 참석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토론발표문

한국의 유교문화와 다문화 한국사회, 해외 한국문화원

임 영 상(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가 위치한 곳이 용인시 모현면이다. 2010년 용인시와 관학협력 사업으로 외대 글로벌캠퍼스에 용인학 강좌를 운영하면서부터 필자는 봄학기에는 반드시 모현면 능원리에 소재한 포은 정몽주 선생을 기리는 포은문화제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다. 학생들은 포은 스토리텔링 공모전에 작품까지 내게 한다. 2013년 공모전의 주제에 “시인으로서의 정몽주를 이야기하다”와 함께 “유교문화를 현대 생활에 적용하다”를 넣었다. 유교문화축제로서 포은문화제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보라는 의도에서였다.

포은 선생의 묘역은 明堂 이름에 걸맞게 아름다운 풍광에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준다. 2011년 제9회 포은문화제에는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과 주한 외교사절들도 함께 했는데, 그때 이참 사장은 추모제례의 아헌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때 외국사절들은 묘역에서의 제례의식에, 그리고 묘역 아래에서 펼쳐진 제례악 연주에 맞춘 무용수들의 장중하고 화려한 춤사위에 눈을 떼지 못했다.

일본 오사카 이쿠노 코리아타운에는 제주도 출신이 많이 살고 있다. 민단과 조총련 등 한인사회 자체의 분열, 일본사회의 차별과 억압 속에서 재일코리안 사회를 하나로 묶어 준 것이 “제사”다. 소련 시기 고려인사회의 최대 행사는 4월5일 한식이다. 그날 고려인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직장인들도 늦게 출근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이른 아침부터 묘지를 찾는 고려인들은 정성을 다해 만든 차례음식을 차리고 ‘우리와는 조금 다른 제사’를 지낸다.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는 한식은 고려인을 고려인답게 해주었다. 중국 연변의 조선족사회는 8월15일을 “노인절”로 지킨다. 1982년 8월15일 동북 해방일(한국의 광복절)을 맞아 항일투쟁, 해방전쟁(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 항미원조(한국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원로와 그 가족이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용정시 동성향진 지도자들이 환갑잔치를 하지 못한 어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효자, 효부에게 상을 주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어른들을 위로하는 즐거운 놀이행사를 가졌다. 그 다음해 연변주정부는 8월15일을 노인절로 지키기로 하면서 조선민족의 미풍약속을 이어가고자 했다. 비록 포은 정몽주 선생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하지만, 해외 거주 한민족사회는 생활 속에서 유교문화를 실천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대통령이 참석한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문화를 통한 코리아프리미엄 창출'이라는 과제와 관련, 현재 24개의 해외 한국문화원을 2017년까지 48개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태국, 브라질, 벨기에, 이집트 등 4개국에 개원할 예정이다. 브라질 상파울로에 개원하는 한국문화원의 프로그램 계획을 알아보았다. 세종학당과 협력하여 한국어강좌를 개설하고 태권도협회 지원으로 태권도 강습을 갖고 한국음식 전시와 체험 행사 등을 생각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에 세워지는 한국문화원도 비슷한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외 한국문화원은 현지 주류사회에 한국의 고급문화를 알리는 것에 역점을 두었는데, 최근에는 K-POP 등 한국대중문화 기반 한류의 확산에 부응하여 K-POP 행사를 개최하고 지원하기도 한다.

드라마와 영화, K-POP 등 대중문화로 시작되었지만, 한국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문화 행사가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이라고 한다. 한국적인 행사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근래 템플(사찰)스테이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관광 상품으로서도 인기가 높다. 템플스테이는 자연스럽게 한국불교, 불교사상과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고 있다. 산에 있어 결심을 하고 떠나야 하는 템플스테이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서원스테이'에 대한 관심도 일어나고 있다. 사실 서원은 선현에 대한 배향은 계속 되어왔으나 교육문화 기능은 상실한지가 오래다. 때문에 유교문화의 재발견과 현대화의 중심으로 서원이 주목을 받아왔다. 머지않아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는 것은, 다문화 한국사회와 해외 한국문화원의 교육콘텐츠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포은문화제는 포은 선생 덕택에 '慕賢' 이름을 갖게 되었으니 모현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추모제례와 천장행렬은 유교문화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도 11회인 2013년부터 경기도대회로 승격되었고, 한시백일장도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최근 한국의 대표전통축제로 선정된 포은문화제에 모현에 살고 있는 130여 다문화가가정을 초청하면 어떨까? 포은문화제가 단순한 볼거리 외에 한국의 생활유교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과 고려인 등 한민족들의 참여도 환영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해외거주 한민족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뉴욕 교민사회와의 만남에서 '해외동포도 한국인'임을 선언했다. 시민권 등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심정적으로 한국인'이라는 뜻일 것이다. 대통령의 선언은 해외 한국문화원의 기능과 임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문화원은 오랜 세월 해외에 살아온 한민족에게 한국인을 한국인으로 만들어준 생활(유교)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에 유용한 교육콘텐츠

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거주국의 주류사회에도 한국의 정신문화를 알리는 유용한 콘텐츠가 될 것이다. 이미 필자는 한국외대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에 브라질과 태국, 중국에서 유학 온 재외동포/외국인 학생들과 유교문화교육콘텐츠 개발을 시작했다. 브라질과 태국의 문화전통과 환경에 어울리는 한국 문화콘텐츠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용인시 모현면에 위치한 충렬서원은 도성 한양에 인접해 있다는 점만으로도 중요한 서원이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충렬서원을 이용한 서원스테이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서원 건물이 문화재이고 불에 타기 쉬운 목조건축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충렬서원은 건물의 원형은 그래도 살려두고, 영주의 선비촌처럼, 산세가 수려한 포은 묘역에 충렬서원의 건물과 같은 건물을 다시 짓고 숙박할 수 있는 현대식 ‘동재와 서재’를 짓자는 마음들이 확산되고 있다. 충효의 고장, 용인(모현)의 포은 묘역에서 서원스테이가 이루어진다면, 45개 외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외대가 포은선생과 충렬서원을 널리 알리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다. 외대뿐 아니라 국내 대학의 외국인 교수와 외국인 교환학생, 다문화가정, 그리고 해외 한국문화원을 통해 한국의 정신문화를 배운 재외동포와 외국인들이 찾고 싶은 유교문화체험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교서원 조례제정 및 운영방안에 관하여

박 경 환(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한때 동아시아인들의 삶을 지배했던 가치의 근거였던 유교문화는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지나간 과거의 문화가 되어버렸다. 유교문화의 발상지인 중국의 경우, 5.4이래 근대화를 위한 전통의 부정과 청산에 더하여 이른바 ‘新中國’의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이념과 체제의 도입 그리고 문화대혁명이라는 광기의 시간을 겪으며 전통문화가 깡그리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지금에 와서는 서원이든 종택이든 아니면 누정이든 유교관련 건물만 형해로 남고 속내가 빠져버린 채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서 생활문화로서의 유교문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중국의 많은 식자들이 안타까워하고 하면서 그와 대비되는 한국의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만을 말하면, 한국에서 유교문화는 긍정적인 측면이든 부정적인 측면이든 여전히 현재형이고, 그런 점에서 한국은 세계 유교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인들의 생활 속에 남아있는 유교문화 혹은 유교적 가치는 한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이자 현재적 의의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 몇 년사이 각 지역의 이러한 유무형의 유교문화에 주목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경북 지역의 예를 들면, 국가적 차원에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필두로 지역의 문화유산을 관광과 연계해 지역 발전의 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지역개발 사업이 시작되어 각 시군의 서원, 종택, 누정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와 정비가 이루어졌고, 관광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의 구축도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최근 ‘3대문화권 개발사업’으로 확대되어 추가적인 관광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실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콘텐츠를 담는 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이러한 모색과 실천은 비록 그 주안점이 정신적 가치의 고양인가 물질적 풍요의 확보인가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의 유교와 과거의 가치를 오늘 여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떤 것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의 소산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유교의 진리 그리고 가르침의 성격이 원래 그러한 것 같다. 거창하고 추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만나는 사람과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묻고 실행함으로써 타자와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유교에서 흔히 강조하는 ‘日用事物之道’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리(道)는 높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자고 활동하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중용』에서는 “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잠시도 벗어날 수 없다. 만약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고 말했는데, 그 의미는 동일하다. 따라서 유교이 말하는 진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들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묻는 것은,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가 다시 지금 여기에 오더라도 묻고 추구할 과제일 것이다. 오늘의 발표와 토론의 주제인 ‘유교문화 현대화를 위한 향교·서원 조례제정 및 운영방안 모색’ 역시 그러한 유교의 본질적 지향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전통의 현대화, 일상화, 대중화 추구의 결실일 것이다.

첫 번째 발표주제인 ‘우리 사회 유교가 왜 필요한가?’는 유교이 버려야 할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을 통해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곧 전통사회에서 교육기능의 수행을 통해 유교적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중심에 서 있던 전국 각지의 서원과 향교의 강학기능의 회복해 유교적 가치를 오늘의 문제해결에 활용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지원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9개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형문화재로서의 서원 건축 및 공간과 더불어 그 속에서 행해졌던 제향과 강학 중에서 사라진 강학기능 회복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도 지원조례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이 孔子學院을 통해 세계를 향해 공세적 문화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교의 발상지 혹은 원조국가로서의 중국에 대응해 유교의 최종적 개화, 현재형으로서의 존속과 기능의 한국을 대비해 강조하기 위해서도 서원과 향교에 대한 접근이 문화유적 보존관리 차원에서 활용의 활성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는 곧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확산하는 유력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발표문인 ‘유교 사상의 현대적 해석과 적용’은 현대사회 문제 해결의 관건이자 유교사상의 연원인 中을 和와 平로 제시하고 이것을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21세기가 직면한 시대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서는 논지 자체에는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서원과 향교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는 실질적 과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和와 平을 개인적 차원에서 구현하고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해 가는 유교적 修己治人의 길과 관련한 유교의 인간관과 교육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즉, 전통사회에서 바람직한 인간상의 육성과 사회적 확산이라는 서원과 향교의 주요한 기능을 어떻게 오늘날 회복하고 활성화 할 것인가가 오늘의 논의 주제인 만큼 발표문에서 제시한 9가지 현대사회의 문제와 유교적 가치 그리고 서원과 향교 설립 운영의 취지 등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향교·서원의 현황과 현대적 활용’은 전국 서원과 향교의 분포 및 운영현황을 상세하게 분석제시하고 서원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설 사용 중심의 관리가 아니라 공적자산화 하여 활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경기도의 조례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 조례제정 추진은 현재의 향교와 서원 운영 주체 및 운영 현황을 감안할 때 대단히 선진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결정과 추진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특히, 발표문에서도 언급했듯 유림 인사들을 중심 구성원으로 해 재단 형식으로 운영되는 향교와 달리 특정 문종이나 사적 기구가 운영의 주체이면서 1년에 2차례의 향사 위주로 운영되는 전국 대부분의 서원현황을 볼 때, 이를 공적 자산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서원이 지닌 강학 기능을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복원하자는 취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관련해 서원의 기부채납이나 공익법인으로의 전환은 발표문에서 언급했듯 서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특히나 소유권의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서원과 향교의 공적 자산화는 소유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서원의 공적기능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핵심이므로 지원조례 역시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등 이미 서원의 강학기능 복원과 사회적 기여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들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조례제정과 운영을 통해 서원과 향교를 지금 여기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적 자산화 하는 것은 유무형의 전통문화를 대중의 일상 속 삶과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재적 의의를 부여하는 일이기도 하다. 전통문화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성과 인식 혹은 깨달음의 대상으로서 대중의 의식 및 삶과 소통됨으로써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의 것으로 재창조되고 나아가 다음 세대에 남겨줄 새로운 이 시대의 자산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토론발표문]

「유교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몇 가지 제언

朴 錫 泓 (소수박물관장)

우리는 그동안 배고픈 서러움과 가난의 굴레를 벗고자 허리춤을 동여매고 열심히 일하여 지금은 산업이 풍성한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이에 걸 맞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살게 되었다. 그러나 매사에 일장일단은 있는 만큼, 한 가지가 흥하게 되면 다른 한 가지는 쇠하듯이 빵문제가 해결되면서부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회헌(晦軒) 안향(安珦)선생이 주자학(朱子學)을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유교는 나라의 통치이념이 되었고, 사서삼경(四書三經)등 성경현전(聖經賢傳)은 향촌사회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바탕이 되어 왔다. 이것을 삶의 가치로 삼아 끊임없이 이어 온 것은 지방마다 향교(鄕校)와 서원(書院)등이 세워져 성현을 숭모하며 후학양성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학시설에는 그동안 고사숙유(高師宿儒)의 가르침이 밑받침이 되어 주었고, 너도 나도 배우겠다는 향학의지가 결집이 되어 한시대의 문풍을 쇄신시킨 바 있다. 일찍이 ‘유교의 가르침을 통한 인간성 확립’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뛰어 난 “배달(倍達)¹³⁾겨레”라는 소리를 들어 온 것이다.

그러나 경제개발과 산업의 발달로 부의 풍요는 누리고 사는 시대는 되었으나 정신문화의 고갈과 전통윤리의 소멸로 계층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짐승들이 사는 사회와 같다는 소리를 듣고 사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진단 처방하고 시의적절한 극복방안으로 향교와 서원 등 전통사회의 교육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유교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성 회복’이란 카드를 제시해 주고 있다.

13) 배달(配達) : 『소학집주』 「소학제사」 편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온 말임. “유성(惟聖)이 사측(斯惻)하고, 건학입사(建學立師)하사 이배기근(以培基根)하며 이달기지(以達基枝)하시니라.”에서 ‘배(培)’와 ‘달(達)’을 따왔으며, 배움을 뜻하는 말임.

기존의 향교와 서원은 제향(祭享)과 강학(講學)이란 두 가지의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다. 전자는 훌륭한 선현을 제사를 통해 길이 경모(敬慕)하고, 후자는 경학(經學)을 통해 후진을 양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선례후학(先禮後學)”이라고도 한다. 지금은 이 제향기능마저 단절의 위기에 놓여 있고 강학기능은 아예 사라진지가 오래이다.

유교는 불교(佛敎)나 기독교(基督敎)처럼 교조(敎祖)나 교주(敎主)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를 종교(宗敎)의 범주에 넣어 얘기는 해도 실제 종교는 아니다. 공자(孔子)는 유교를 창조한 분이 아니고 집대성(集大成 : Compilation)한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교를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공자와 같은 선성(先聖)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 만드는 윤리도덕(倫理道德)이요, 나라를 올바르게 경영하도록 가르친 정치사상(政治思想)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지금은 전국 도처에 남아 있는 향교와 서원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방치되어 주인 잃은 빈집 신세이다. 한해 두어 번 제향모임이 있을 때만 찾게 되다 보니 점점 퇴락일로에 있는 이런 낡은 시설물을 어떻게 재활용 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전통교육문화유산을 다시 활용하려면 먼저 하드웨어 부분에서 건물유지관리상 운영주체의 정리, 상주인력지원, 건물유지경비와 인건비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일이다.

대부분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는 유림과 문중의 연령층이 높아서 유지관리의 한계에 놓여 있고, 대를 이을 젊은 세대들은 관심 밖이므로 문화재로 등록된 곳은 그나마도 최소한의 개보수와 유지관리가 되고 있으나, 비지정문화재는 현재까지 방치에 가까운 형편이다. 그러므로 국가(지자체)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바, 남 먼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서원연합회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함은 시의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소수서원은 96년 영주시가 유림으로부터 위탁관리를 맡게 되면서 처음으로 시설물 관리에 따른 운영조례가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여러 번 개정을 거치면서 서원기능의 활성화와 수서원(首書院)으로서의 가치를 재조명코자 노력해왔다. 그나마도 제한적인 인력과 예산 그리고 주변의 관심으로 제향기능의 명맥이 이어올 수가 있었으며, 더불어 시설의 유지관리 그리고 주변 환경정비 등으로 관광수요 창출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예전처럼 유교에 깃든 사상, 정신, 얼 등이 서원을 통해 전해지도록 '인성교육(人性教育)' 프로그램의 보완이 요구된다.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나라(공교육)에서조차 안 가르치는 역사와 전통문화를 소개하므로 '충효(忠孝)정신'을 배양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비전(vision)을 제시해 주는 서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시대의 부산물로 마음이 병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공간(healing place)'이 되도록 함도 서원과 향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소수서원은 서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사무동과 충효교육관을 지어 전국 기관단체 임직원과 국공사립 초중고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람다운 삶'을 주제로 한 인간성 회복에 관한 교육과 충효를 바탕으로 한 선현들의 국가관을 심어 주면서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런 사실을 롤-모델로 삼고자 98년과 2000년에 중국교육정책의 수뇌부가 벤치-마킹하여 간 사례도 있고, 2012년에는 뉴욕타임지(NYT)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IHT)에서 취재하여 보도하므로 관심 있는 외국 분들의 발길도 잦은 편이다.

그러나 요즈음 나라 안에서 우리 국민의 가치관과 사고의 현 주소가 매우 위험 수준에 놓여 있음을 느끼게 된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시간 안에 경제수준이 향상되므로 빵문제가 해결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되면서 자유방임적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보태고 뜻을 보태던 과거와는 달리, 의무보다는 주장이 앞서고, 양보보다는 내가 먼저요, 미래지향적이기 보다는 현재에 안주하려는 단절적 사고가 팽배한 사회로 변한 것 같다.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의 애친경장(愛親敬長)이 이소능장(以少凌長)으로, 멸륜패상(滅倫敗常)과 기세도명(欺世盜名)의 난세실학(亂世失學)으로 변하였다. 정치권의 무지로 공교육에서 우리의 고유한 문자인 한자한문(漢字漢文)을 없앴고, 더하여 역사(歷史)와 윤리도덕(倫理道德)마저 축소 왜곡시켜 왔으니, 서원향교는 당연히 무너지기 일보직전이요, 짐승공화국 소리까지 듣고 사는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치료하는 방안과 건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이 시대의 참 화두(話頭)는 무엇일까? 병든 공교육을 치료한답시고 참교육을 외치는 분들이 있지만, 그 참교육의 방향은 무엇이며, 그 방식대로 치료가 되었는지?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분들이 있지만 이 어두운 시대에 불의가 사라지고 이념을 배제한

정의로운 사회로 탈바꿈이 되고 있는지? 말은 ‘사람중심’ 운운하면서도 ‘먼저 인간이 되라’는 정치는 부재하니 우스운 일이 아닌가.

유교(儒敎)는 철 지난 버전(version)도 아니고, 재화적인 가치를 따질 만한 경제적 동인(動因)도 아닌 오직 인간성 회복의 길잡이일 뿐이다. 그러므로 방치되어 있는 서원 향교 등의 전통유교자산은 잘 활용한다면, 이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역기능을 해소함에 가장 소중한 역할을 담당할 우리민족의 아이콘이요, 어떤 종교단체나 정치가들이 해결할 수도 없는 한국사회의 병리현상을 치료시킬 방도이며, 경도위립(傾道爲立)을 시킬 에너지원임을 확신한다.

양약(洋藥)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한약(韓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선 먹기 좋은 것을 선호하듯, 우리 그동안 편리한 아파트 문화에 젖어 불편한 한옥(韓屋)을 기피하는 것도 문제이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서원은 그나마도 제한적 개방으로 홍보교육 유지관리가 되고 있으나, 재정적인 힘이 약하거나 인적구성원이 적은 유림단체나 문중에서 유지관리중인 서원향교는 개방공간으로 유도해도 상시가 곤란하므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차별화시켜야 한다.

향후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도적인 보완에 따라 일정규모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겠으나, 천편일률적인 시스템으로는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리와 운영주체를 지자체와 유림(문중) 아니면 유림(문중)과 수탁자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도 정권임기 내라는 한시적이고 조건부적인 정책이라면, 유교자원의 활용이라는 꽃은 피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싹이 자라 열매를 거둘 때까지 지원은 일정기간 계속되어야지 생색만 내다 말 경우엔 사생아를 낳고 홀로서기를 시키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사적(史蹟)으로 지정받은 서원은 지자체로부터 제향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소수서원은 매년 문성공 묘우(文成公 廟宇)에 봄 . 가을(음 3월9월 초정일)로 두 번의 향사(享祀)를 드린다. 적잖은 제수(祭需)비용 때문에 희생(犧牲)을 오래 전부터 소(牛) 대신에 돼지((豚)로 대체하였고, 전일입재(前日入齋)의 자시(子時)향사를 당일입재의 오시(午時)향사로 바뀐 것을 보면 다른 서원도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특히 다른 서원과 달리 이곳 문성공묘(文成公廟)는 춘추제향 때마다 문묘(文廟)나 종묘(宗廟)의 제례악(祭禮樂)에 버금가는 도동곡(道東曲)¹⁴⁾을 창(唱)하는 것이

독특하다. 제1련에서 3련까지 헌관들이 분창(分唱)하는 것은 공자의 도가 회현선생에 의해 동국(한국)으로 옮겨 온 사실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그 높은 뜻을 노래한 점이 특이하므로, 채보된 곡조를 바탕으로 제향 전 과정을 하루 속히 무형문화재로 지정시켜 전승시킬 필요성이 있다.

서원의 활용 프로그램도 서원향교마다 각양각색이다. 해당서원의 사정과 특색을 살려 다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곳도 더러는 있다. 소수서원도 국비지원으로 몇 해를 시험운영하면서 예상치 못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자리도 잡기 전 국비지원의 액수축소와 이에 따른 늘어나는 시·군비 부담 때문에 기초의회의 예산증액 불가로 이어져 결국 서원스테이(Seowon Stay)사업이 도중에 중지되는 위기까지 갔던 일도 있다.

이처럼 형식에 치우쳐 일과성 정책으로 끝내버리는 한시적 사업이라면 이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조선공사 삼일’이라는 소릴 듣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나 광역단체 그리고 지자체는 무엇이 나라 살리는 일인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볼 일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가운데 뿌리내리고 성장시켜 바람직한 국민성과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끝으로 유림단체나 문중에서는 집단의 이익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신이 병든 우리사회를 향교와 서원이라는 매개체를 활용, 치료하는 회복과 치료의 센터로 만들어 볼까?’ 고심하는 차원에서 문호개방·시설위탁 등 상호 호혜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산이나 관리문제 등으로 ‘안 된다.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우리 젊은 세대의 장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향촌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면 어떨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원로들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번 종합토론에 두서없이 몇 가지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14) 도동곡(道東曲) :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 선생이 백운동(白雲洞)서원을 창건하면서, 먼저 안향(安珦) 선생을 기리고자 문성공(文成公) 묘우(廟宇)를 세운 뒤, 회현(晦軒)선생이 중국으로부터, 공자의 도를 도입하게 된 것을 경기체가(景幾體歌) 형식으로 노래한 것임.

고양향교의 운영 사례를 통한 정책 제언

선 호 술(고양향교 사무국장)

1. 고양향교의 향교운용 현황

고양향교는 향교와 유림회관이 10km이상 떨어져 있어 향교관리가 조금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1999년 6월2일 고양명륜대학을 개교하고부터 조금씩 성인들을 위한 진사반, 예절반을 시작으로 주 2-3회의 경전교육과 더불어 청소년 인성교육을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1). 고양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인성교육

2012년에는 고양교육지원청 방과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부모님과 함께 하는 주말예절학교”를 운영하였다. 매주 토요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버스로 담당교사의 인솔로 부모님과 함께 명륜당 에서 제기도 만들어 함께 차고 부모님과 투호놀이 줄넘기, 아이들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처음 입어보는 선비옷(도포)입고 부모님께 직접 절하는 것도 배우고 부모님은 마냥 즐거운 표정으로 사진 찍느라 분주한 하루였고 정말 오기를 잘했다고 부모님들은 입을 모은다.

2013년에는 성균관 유교문화사업단의 지원사업으로 서원향교 활성화를 위한 향교 명륜당 동재 서재를 이용한 시설개보수를 하여 향교스테이를 고양교육지원청과 연계한 1박2일 프로그램을 진행계획하고 있으나 경기도문화재 등록된 서재에 편의시설 현상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문화체육부에서는 서원 향교를 활용하라고 시설개보수자금을 지원하여 주고 경기도에서는 문화재라고 발목을 잡고, 활용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사업비 또한 현상변경을 위한 설계비등 20%이상 추가되는 현실이 어렵기만 하다. 향교서원 현대화를 운운하면서 깊이 새겨 볼일이다.

2). 찾아가는 인간성교육

2013년 교육청과 연계한 “고양365 교육나눔미”라는 프로그램으로 관내19개 초등학교 5.6학년 87개 반 2,364명 학생들 에게 인성교육 및 예절교육 실시로 관내 5개 기관 교육나눔미 단체 중 가장 양질의 교육을 하였다는 종합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1회성교육(2-4시간)이 아닌 정례화 되어야 하며(월1회 이상 전학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담당교사들도 말하고 있지만 현실이 그러지 못 한 것이 아쉽기만 하다.

3). 행주서원에서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선비체험 및 다도체험교실

고양교육지원청 방과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각급 학교 학생 및 외부강사들의 선비체험과 다도체험을 하였다. 서원에서 다도체험은 옛 선비들의 체취가 밀려오는 듯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또랑또랑한 눈으로 처음 접해보는 다도체험에 아이들도 부모님도 선비가 된 듯 다식판에 다식을 만들고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차를 우려 우려마시는 모습들은 그들에게는 잊지 못할 시간이었을 것이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주말예절교실

교육일정표

교육주최	고양향교	지도강사	성균관 고양향교 예절강사 외		
교육주관	고양향교	강의시간	1일3시간 오전09:00-12:00 오후13:00-16:00	시간 (선택)	21회(매주토) (회당 25-30명)
지도 일정표					
시간	장소	학습주제	학 습 내 용	시간	강법
1교시 (50분)	고양향교	고유례	1. 선비옷 입기 2. 부모님과 함께 고유례 3. 집례, 축관, 제집사(어린이들 진행)	30분	체험
		우리문화재 알기?	1. 향교는 어떤 곳인가. 2. 주변 문화재 알기	20분	이론 듣기
2교시 (50분)		인성이란 ?	1. 학교예절과 공공장소예절 2. 인성교육이 먼저이다. 3. 우리절 배우기	50분	이론 실습
3교시 (50분)		전통놀이 체험	1. 투호놀이 (부모님과 청백으로 나누어 놀이) 2. 제기 만들어 차기 (부모님과 함께 제기만들기) 3. 윷놀이 등 전통놀이	50분	만들기 체험

※ 행주서원에서는 3교시에 다도체험을 하다.

4) 향교는 해설사 배치는 왜 안 되는가

향교의 역사는 어느 향교나 비슷 할 것이다. 성균관을 기준으로 대부분 올해로 615년이 되는 해이다. 고양향교는 경기도문화재 자료69호 이면서도 항시 개방이 안 되어 관람객들로부터 문 좀 열어달라는 민원인들이 하루에 2-3번씩 전화를 받을 때가 많다. 더우기 고양향교는 중남미 문화원과 담장을 같이하고 있어 그 곳에 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향교를 들어오고 싶어 하다. 더욱이 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 호기심은 더욱 가중 될 것이다.

가. 유림들이 나가서 개방하고 해설도 해보았다.

한때는 우리유림들이 2-3명이 나가서 문을 열고 해설도 해주자고 하여 유림들이 돌아가며 개방을 한 적도 있었지만 얼마 못가 주저 않고 말았다. 왜냐하면 유림들이라고 하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기에 해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하루에 한번이 아닌 종일토록 상주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나. 고양시청에도 수차례 해설사 상주 요청을 해보았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설사 파견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100년 정도의 민속가옥에는 해설사 파견이 되고 600년이 넘은 고양향교는 문화재 가치가 없는가라고 물었지만 허사였다.

다. 주민들과 단체에서는 항시개방을 요청하지만 개방해놓기는 쉬운 일이지만 관리가 안 되고 도시락 싸들고 와 난장판을 만들고 여기저기 낙서하고 창호지 문 망쳐놓고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된다.

라. 고양향교는 많은 어린이 동아리 단체들이 쉽게 이용하길 원하고 있다. 미리 전화하고 예약을 하고 와야 사용할 수 있는 형편이다.

마. 경기도내 향교에 선별적인 해설사 상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향교는 유림들만의 사용이 아닌 모든 주민들이 쉽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활용이 되고 전통문화 또한 발전 될 것이다.

2. 성년식을 치루면 자녀가 달라진다.

1) 어른이 되는 성년의식 왜 소홀이 하는가 ?

성년식은 우리 전통 예법인 관·혼·상·제례 네 가지 통과의례 중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관례(冠禮)이다. 이 四禮중에서 혼례, 상례, 제례는 이어져 내려오지만 관례라는 말조차 모르고, 아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는다. 관례란 성년례인 것인데 이 성년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각국은 물론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에서 행하여지고 있고 또한 성년을 위한 성년식이 치러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5월 셋째 주 일요일에 시민의 날로 정하여 새로 선거권을 갖는 성년에게 축하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한다. 이웃인 일본에서는 1월 8일이 '성인의 날'이며 국가 공휴일이다. 일본은 18세가 되면 성인 대우를 받는데 이 날의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가 기모노를 입고 사진관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고 부모들은 아들에게는 지갑을, 딸에게는 핸드백을 선물하는데 그 안에는 재물 운을 기원하는 뜻으로 1만 엔이 들어 있게 마련이다.

그 외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나라들이 성년식을 치르고 있다. 그중에도 우리나라의 전통성년례는 가장 합리적이고 청소년들이 바른길로 갈 수 있는 유익한 행사인 것이다.

2) 성년식 역사와 의미

(1) 우리나라의 관례 역사 기록으로는 고려 초 광종 16년 AD 965년으로 천여 년 전에 가관제도가 있어서, 어린이와 성인의 복식을 구분하는 의식을 거행 했었고

(2) 조선조에서도 관례와 계례로 정착되었다가, 한일합방 후 1895년 단발령(斷髮令)내려 상투를 틀 수 없고 비녀를 꽂을 수가 없어 공식적으로 관례, 계례가 없어졌고 당연히 어른노릇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되었다. 그 후 78년이 흐른 1973년에 성년에 날이 정하여졌다.

(3) 삼한 시대의 마한에서는 육체적 고통을 가하여 어른이 되는 마음을 단련 시켰으며, 고려 이후 조선조에서는 가례의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다.

(4) 그 절차를 보면, 사람의 머리에 쓰는 으뜸 되는 모자와 의복을 세 번씩이나 각기 다른 것으로 갈아입히면서 아이가 어른이 된다는 정신적 신비감을 갖게 하고, 복잡한 절차만큼이나 어른의 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했다. 여자는 15세가 되면 집안의 예절을 잘 아는 어른을 모셔서 대청마루에서 머리를 올려 쪽을 짜고 비녀를 꽂았으며, 15세가 넘어도 혼인을 하지 못하면 다시 머리를

풀어 땀기를 드리웠다.

(5) 이토록 변화를 주는 것은 가정과 사회 질서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과 융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집안에서는 자식과 형제의 자리에서 효도와 우애를 다하고 밖에서는 장유(長幼)의 질서를 숭상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규범을 준수하는 책무를 다하도록, “사람의 기본”을 깨닫게 하는 의식이다.

또한 ‘어른을 향한 젊은이’들을 위하여 가정과 이웃, 사회 그리고 국가가 다 같이 참여하여 엄숙한 자리를 마련하고, 이러한 전통 관례의 참된 뜻을 이해하여 “어른다운 어른”으로서의 고리가 되는 성년례가 각 단체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3) 고양향교의 성년례의식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4월20일을 성년에 날로 정하고 성년례를 해주다가, 1975년에 5월이 가정에 달이어서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양향교에서는 올해로 15회째 성년 날에 전통성년 의식행사를 3개구 청을 순회하며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년의 날은 5월 셋째 주 월요일이지만 우리는 셋째 주 토요일에 행한다. 이유는 월요일은 성년자가 거의 학생들이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행사장에 출수가 없기 때문이다. 올해는 5월18일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성년식을 하다.

이 행사는 고양시 주최 고양향교 와 성균관유도회 고양지부 주관으로 해마다 행하여지고 있다. 성균관유도회와 고양향교에서는 고양시 등에서 지원을 받아 매년 크고 작은 행사를 25여회를 하는 중 가장 크고 힘이 드는 행사이다. 행사용품만 트럭으로 1트럭을 옮기는 일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성년자를 모집하는 일이다.

올해는 성년자가 만20세가 되는 1992년생인데 고양시에 성년자가 약1만1천여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전통성년의식을 치러 주기위하여 각 구청 동사무소에 의뢰를 하여도 참여자가 매년40~50명 모으기 쉽지 않다. 관내 일부 단체 등에서도 성년식을 치루고 있으나 아주 극소수이며 제도적 주체가 없이 진정한 성년의 의미를 심어주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에는 군부대에서 장병60명을 대상으로 성년식을 치러 주기도 하였다.

2012년도에 성년식을 치루고 난 성년자와 그의 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성년자 본인도 매우 좋았으며 의미가 깊었다고 말하고, 부모님들도 성년식을 치루고 나서 행동에서부터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그런데도 홍보부족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더욱이 성년자들이 성년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이해 못 하고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유교(儒敎)적인 행사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다. 성년식에는 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권장을 하고 참여를 하여야 하고 부모님들이 필히 함께 참석을 하여 축하해 주고 선물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년이 되는 사람이 당사자로 의식행사에 참여해야 어른노릇을 배우고 성년자가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 보고 또 말만 듣고서는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성년의식을 치러 주는 기관 또는 단체 에서는 성년자들이 부모님들의 권유가 아닌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들만의 진정한 축제도 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말로만 전통문화 계승이 아닌 언론과 교육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가 아쉽기만 하다.

4) 성년식을 치루고 나면 부모도 달라져야 한다.

관례를 하고 나면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이기 때문에 대접이 달라진다.

- (1) 말씨 : 아이 적에 사용하던 낮춤 말씨“해라”에서 보통말씨로 바꾸어 “하게”로 높여 준다.
- (2) 이름 : 아명(兒名)을 부르던 것을 관·계례 때 지어준 자(字)나 당호(堂號)를 부른다.
- (3) 절 : 성년이 된 자의 절은 앉아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답배를 한다.
- (4) 품삯 : 어릴 때 받던 반 품삯에서 성인 품삯으로 올려 준다.

5) 성년의식 가정과 기관 단체는 현대식으로 홍보되어야

전통 성년식은 절차에서부터 복식 등 까다로워서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어렵다. 현대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만20세가 되는 생일날에 집에서 개별성년례와 학교 기관 단체 기업 등에서 소속 원 중에서 성년이 되는 사람을 모아 성년의 날에 집체성년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전통성년례는 옷을 세 번이나 갈아입고 하는 삼가례(三加禮)를 하고 있으나 현대성년례는 언제나 입을 수 있는 깨끗한 평상복 입고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현대 성년례는 성년선서(成年宣誓)와 성년선언서(成年宣言書)를 준비하고 주례자(主禮者)가 성년자에게 어린마음을 버리고 어른다워지는 어른노릇을 가르치는 수훈(授訓)이 핵심이 된다. 전통성년례와 개별성년례에서는 “술의 의식”이 있지만 집체성년례에서는 술의 의식은 생략된다. 또한 남자에게는 자(字) 여자에게는 당

호(堂號)를 지어주었으나 현대성년례에서는 관명(官名)이 통용되기 때문에 생략이 된다. 이러한 절차는 한국전례 연구원에서도 권장하는 바람직한 성년례라고 홍보하고 있다.

3. 향음주례 시연행사

고양향교 에서는 매년 향음주례시연 행사를 하다. 올해로 13번째 행사를 하게 됩니다. 2000년 가을 서울 인사동 에서 막걸리 공장들과 함께 전국막걸리 축제를 하면서 향음주례 시연행사를 시작으로 2002년부터는 고양시 일산동구청 앞 문화광장에서 전국막걸리공장 40여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장에서 매년 정식 프로그램으로 향음주례 시연행사를 하다. 그와 더불어서 관람객들과 함께 목제주령구 놀이는 고양유림들이 다양한 전통문화 시연을 하고 있다.

여기에 매년1.2회 하는 향음주례 홀기를 첨부한다.

鄉 飲 酒 禮 笏 記

■ 지금부터 옛 선비들이 술을 마시는 법도, 즉 鄉飲酒禮를 시연하겠다. 다소 생소하더라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鄉飲酒禮란 고을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禮인데 어진 이를 尊敬하고 老人을 奉養하는 뜻이 담겨 있다.

(요의)

술 한 잔을 마시고 밥 한 그릇을 먹는 데도 次例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데도 禮節이 있는바 만사에 秩序를 지킴이 禮요 만물의 調和를 이룸이 樂이라 했다.

생각에 邪惡함이 없게 하는바 儒敎는 治國平天下의 큰일로부터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禮義를 갖추어 道理를 세우는 가르침이다.

향음주례는 周六禮(冠禮, 婚禮, 喪禮, 葬禮, 鄉飲酒禮, 士相見禮)가운데 하나로 선비에 게는 어른을 恭敬하고 노인을 奉養하는 의리가 있음을 밝히고 음식을 청결하게 갖추고 감사하게 먹어야 하는 본의를 깨우는 예절이다.

향음주례는 행례 날짜를 정하고 손님을 청하여 술을 대접하는 예이다.

빈은 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분으로 선택하고 그 외의 손님도 벼슬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고 일을 볼 수 있는 분으로 정 했다

그 외에도 악공이 있었으나 없는 경우는 그냥 실행하였고, 악기로는 琴瑟(거문고, 비파)을 연주였다.

안주는 포와 삶은 고기, 술은 청정한 술이었다만 오늘 시연에서는 막걸리와 전과 간

단한 안주를 사용하겠다.

오늘 행하는 향음주례는 傳統 鄉飲酒禮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傳統에 가깝도록 시연하겠다.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보는 재미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옛날에는 선비들이 술을 마시는 법도가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지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1. 첫번째. 손님을 청하는 예절이다.

㉠ 主人은 큰손님이 될 어른의 집으로 찾아가 大門밖 서쪽 기둥에서 동향을 하여 서서 큰손님을 부르십시오.

주인은“이 대감 계십니까?” 라고 크게 말하십시오.

☞ 주인이 서쪽 기둥에서 큰 손님을 부르는 것은 예절의 방위에서는 북쪽을 상석으로 하여 주인은 동쪽이요, 객은 서쪽이기 때문에 손님으로 모실 집 대문 서쪽에서 손님을 부르는 것이다.

㉠ 큰손님 되실 분은 문밖 동쪽기둥에서 西向향하여 대답 하십시오

큰손님은“누구십니까?” 라고 말하십시오.

주인 - 저올시다 라고 말하십시오!

큰손님- 아이구 선 대감께서 원 일이십니까 라고 말하십시오!

㉠ 큰손님은 먼저 상읍례를 하십시오.

㉠ 주인도 上揖禮로 답배를 하십시오.

㉠ 주인은 큰손님에게 請하십시오

주인- 이대감 오늘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행사에. 우리 옛날 선비들이 하시던 鄉飲酒禮를 하고자 하는데. 이 대감을 큰 손님으로 모시고자하다. 어땡십니까.(공손하고 정중한 자세로 다소 손짓을 하면서 말한다) 라고 말하십시오.

㉠ 큰손님은 답변 하십시오

큰손님은“저는 學德이 모자라 勘當할수 없다”라고 말 하십시오

㉠ 주인은 다시 한번 請하십시오

주인은“이 대감의 人格을 믿고 모시고자 하오니 許諾하여 주십시오”라고 말 하십시오.

㉠ 큰손님은 허락의 대답을 하십시오

큰손님은“거듭 懇請하시오니 過分하오니 따르겠다”라고 하십시오.

㉠ 주인은 허락하여주신 감사의 표시로 上揖禮를 하십시오.(허락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하다)○ 큰손님도 답배하십시오.

㉠ 주인은 행사준비관계로 물러나오며,상읍례로 인사하십시오. ○큰손님도 작별의 뜻으로 상읍례를 하십시오.

☞ 주인과 손님이 상읍례로 인사를 하는 것은 큰절을 해야 하나 장소가 마땅치

않아 상읍례로 큰절을 대신한 것이다.

재배를 하는 것은 절은 기본 횃수가 남자는 한번이요 여자는 두 번이다.

그러나 의식행사 즉 관. 혼. 상장. 제례. 의식행사에서는 기본횃수의 배를 하므로
향음주례에서는 기본횃수의 배, 즉 두 번을 하는 것이다.

☞ 상읍례를 하는 방법은 공수한 손이 무릎까지 내려갔다가 이마위치로 올라왔다
가 다시 공수 자세가 되는 것이다.

읍례 역시 상읍례, 중읍례, 하읍례가 있고 대상에 따라 방법을 달리한다.

2. 두 번째. 주인이 손님을 모시는 禮節이다.

- ▶ 우리의 전통예절이 모두 그러하듯 향음주례 역시 절이 유난히 많다.
이르는 데마다 절하고, 씻을 때마다 절하고, 받을 때마다 절하고,
끝날 때마다 절하는 것은 지극한 존경과 감사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 ▶ 절은 우리 전통예절의 인사법으로서 공경을 나타내며
예전에는 반드시 절로서 인사를 했다.
- ▶ 선비에게 귀중한 것은 오직 예이니,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이라 하였는바, (한문 설명)
예란 절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니
사람이 부모님을 뵈 때, 신명에 제사를 지낼 때나,
빈객을 접대할 때는 반드시 절을 하는 것이니 사람이 절을 모르면
나머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❶ 주인은 鄉飲酒禮 연회 준비가 되었으면 執事를 보내 손님을 모셔오게 하십시오.

주인- 김 집사 이 대감댁에 가서 이 대감 모셔오시게(손으로 손님 집을 가리
키며) 라고 말 하십시오

집사- 네 알았다. 라고 말 하십시오

❶ 執事は 손님집 大門에서 (西쪽)上揖으로 큰손님에게 人事하고 청하십시오.

집사는 “손님 모시러 왔다” 하십시오

집사는 손님을 (다른손님도따라온다) 주인집 大門까지 인도하십시오

⑦ 집사는 주인집 대문 앞에 이르러 주인께 말 하십시오

집사는 “ 손님오셨다”라고 알리십시오.

❶ 주인은 일어나 대문 앞까지 내려가서 큰손님에게 상읍례 하십시오.

주인은 “이 대감 어서 오십시오 정말 감사하다” 라고 하십시오

❶ 큰손님도 대문 동쪽에서 상읍례(拜)하십시오(큰손님은 초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❶ 주인은 수행한 여러 손님에게 上揖禮로서 인사 하십시오, 여러 손님도 上揖禮로
답배하십시오.

❶ 주인과 큰손님은 階段아래서 마주 보면서 서로 먼저 오르기를 청 하십시오

주인- 이 대감 먼저 오르시지요 (손으로 안내하면서)

큰손님- 주인이신 선대감 먼저 오르셔야지요.(양보하는 표정을 하면서)

주인- 손님이신 이대감 먼저 오르셔야지요.

큰손님- 주인장이 먼저 오르셔야지요.

주인- 그럼 제가 먼저 오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 주인이 먼저 오른발부터 오르고 손님은 왼발부터 합죽으로 오르십시오.

禮에서 세 번 사양하는 뜻은 달이 3일로서 백(魄)을 이룸을 말하는 것이다.

(백이란 달이 형체만 있고 빛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그믐 전 3일 아침달이 동녘에서 보이고 초하루 후 3일 저녁달이 서쪽으로부터 지려고 할 때 백이 보인답니다.)

㉠ 계단에 올라 대청에서 마주 보고 서십시오. 주인이 먼저 큰절(배)하십시오. 큰손님도 큰절(答拜)한 다음 마주보고 앉으십시오. 여러 손님도 앉으십시오.

☞남자의 큰절을 잘 보십시오. 공수한 손을 바닥 대고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발에 안착시킨 다음 머리를 깊숙이 숙였다가,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고 무릎위에 공수한 손을 올려놓고 일어서서 손은 원래자세 즉 공수자세가 됩니다.

3. 세 번째. 主人이 큰손님에게 술을 대접 하는 禮節이다.

▶ 손님을 대접함에는 1. 옷을 단정히 입고 2. 공손한 마음으로 대접하며 3.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 받고 4. 권하고 사양함에는 법도가 있으며 꼭 長幼有序의 질서를 지켜야 하다.
끝내 몸가짐을 홀트려 트리지 않고 대접하며, 최다 7잔을 넘져 권함이 없어야 하다.

㉠ 執事는 준소의 보자기를 걷고 용작을 내어 놓으십시오.

㉠ 주인은 술잔을 들고 동쪽계단으로 내려가시면, 큰 손님도 일어나 따라 내려가십시오!

주인은 “그대로 앉아 계시지요”라고 하십시오

큰손님은 “저 때문에 너무 수고가 많으시니 앉아 있기가 민망하다”라고 하십시오.

㉠ 주인은 술잔을 들고 잔 씻는 곳에 가서 손을 씻고 잔을 닦으십시오.

큰손님은 “저로 하여금 수고가 많으십니다”라고 하고.

주인은 “안주 없는 술이지만 청결이 하고자 할 따름이다”라고 하십시오.

㉠ 주인과 큰손님은 같이 허리 굽혀 禮를 표하고 계단 위에 대청으로 올라 마주보고 서십시오.

㉠ 손님이 한번 읊하십시오. 주인도 술잔을 상위에 놓고한번 읊으로 답배하십시오.

☞주인과 손님이 큰절로 예를 표해야 하는 것이 전통이나 오늘은 간소화하여 읍례로 대신하였다.

① 손님은 술상 앞에 가서 서 있으십시오. 主人은 준소에 가서 술잔에 술을 채워 들고 손님 앞으로 가 서십시오.

① 주인은 술잔을 손님에게 주십시오.

① 손님은 술잔을 받아 상 위에 놓고 주인에게 한번 읍하십시오.

① 주인도 한번 읍으로 답배하십시오.

① 주인과 손님은 다 같이 앉으십시오.

① 집사는 안주와 포를 축제 상에 갖다 놓으시고 제자리로 가십시오.

① 손님은 술잔 들어 반제 한 후 다 마시십시오.

큰손님은 “선대감님의 전통술은 언제 먹어도 항상 맛있다” 라고 말하고

주인은 “감사하다. 우리 내자가 술은 곧잘 만듭니다 ” 라고 하십시오.

① 손님과 주인은 일어나십시오. 손님은 주인에게 읍하십시오. 주인도 읍으로 答拜하십시오

① 주인과 손님은 마주보고 앉으십시오.

☞술과 음식을 반제하는 것은 天地神明께 감사하는 뜻과 사람들에게 天地神明이 흠향하는데 청결한 음식을 드려야 함을 일깨우는 예이다.

① 執事는 잔을 남겨놓고 안주와脯를 모두 가져 가십시오.

☞ 옛날 안주에 사용한 포는 육포는 사슴포 어포는 대구포를 사용하였다.

4. 네 번째. 손님이 주인에게 술을 대접하는 禮節이다.

☞ 요즈음 읍주는 술잔을 각자의 잔으로 따로 마시거나, 주인과 손님이 잔을 돌려 가면서 마시지요. 향음주례에서는 잔은 하나를 사용하여 돌려가며 술을 마시는데, 술잔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차례로 술을 먹게 하는 것은, 총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또한 음식 그릇과 손을 자주 씻게 하는 것은, 태만을 없이 하고자함이다.

① 큰손님은 술잔을 들고 잔 씻는 곳으로 내려가면, 주인도 한발자국 뒤를 따라 가 십시오
큰손님은 “그냥 앉아계시죠”라고 하십시오.

주인은 “송구스러워 앉아있기가 민망스럽다”라고 하십시오.

① 執事는 준비한 물로 손님에게 손을 닦고 잔을 씻게 도와주십시오

① 주인과 손님은 대청으로 올라와 마주 보고 서십시오.

① 주인이 먼저 感謝의 뜻으로 읍하십시오, 손님도 읍으로 答拜 하십시오

① 主人은 축제상 앞에 가서 서있으십시오, 손님은 준소에 가서 술을 따라 가지고 主人 앞으로가서 술잔을 들고 서십시오. 손님은 술잔을 주인에게 주십시오

① 주인은 술잔을 받아 축제 상 앞에 놓고 읍하십시오, 손님도 읍으로 答拜하십시오

① 주인과 손님은 마주 보고 앉으십시오.

① 집사는 고기와 안주를 축제 상 앞에 갖다 놓고 제자리로 가십시오.

① 주인은 술잔을 들어 반제하시고 다 마시십시오

- ㉠ 주인은 일어나서 감사의 뜻으로 읊하십시오. 손님도 읊으로 답배하고 앉으십시오
- ㉡ 執事는 안주를 모두 가져 가십시오

5. 다섯 번째. 주인이 여러 손님에게 술을 대접하는 예절이다.

▶ 술이란 천지신명에게 제사 지낼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숭고한 음식이요, 노약한 이의 혈기를 돌우는데 귀중한 약물로써, 사람이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한갓 환락의 도구나 客氣의 음료로 함부로 마시고 狂氣를 자행하다 마침내 肉體와 정신이 병들게 되고, 가산을 蕩盡하고 家庭을 파괴하며, 사회에 혼란을 일으켜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니 옛 성인들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의 예절을 조화 있게 제정하여 시행하였다고 하다.

☞ 이때부터는 서로 권작을 하게 되는데 최다 7잔을 넘지 않아야하다.

- ㉢ 주인이 잔을 들고 잔을 씻는 곳으로 가면 큰손님도 따라 내려가십시오.
주인은 “그냥 앉아계시지요”라고 하십시오.
큰손님은 “너무 수고하시니 감히 앉아있기가 민망하다” 라고 하십시오.
- ㉣ 집사는 주인이 잔을 씻게 도와주십시오.
손님은 “저 때문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라고 하십시오.
주인은 “감히 깨끗이 아니 할 수 없다”라고 하십시오.
- ㉤ 주인과 큰손님은 서로 굴신례를 하고 올라와 큰손님은 제자리로 가서 서십시오.
- ㉥ 주인은 준소로 가서 잔에 술을 채워 들고 큰손님 앞으로 가 서십시오.
- ㉦ 큰손님은 감사의 표시로 한번 읊을 하십시오. 큰손님은 잔을 받아 축제상 앞에 놓고 앉으십시오.
- ㉧ 집사는 안주를 축제상 위에 놓으십시오.
- ㉨ 큰손님은 술잔을 들어 반제하시고 술을 모두 마시십시오.
주인은 “오늘 이대감과 같이 술을 마시니 술맛이 더욱 좋다”
큰손님은 “아 그렇습니까! 감사하다”
- ㉩ 큰손님은 술잔을 주인에게 주고 옆 자리로 가 앉으십시오.
- ㉪ 주인은 여러 손님앞으로가서 읊하고, 손님들도 천천히 읊으로 답배하십시오.
- ㉫ 주인은 여러 손님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주인은 “너무 오래 기다리셨다 저를 따라 오십시오
대감님들 오셔서 다 같이 앉읍시다. 라고말하십시오
- ㉬ 여러 손님들도 술상 앞에 와 둘러 앉으십시오 .
- ㉭ 주인은 집사를 시켜 술통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주인은 “김 집사 술을 통째로 가져오게” 하십시오
집사 “예 알았다” 라고 하십시오.
- ㉮ 주인은 여러 손님에게 술을 권하고 끝잔을 마신 손님은 잔을 주인에게 주시고,

서로 권작을 하다.

(세상야기 집안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 오늘은 시간관계상 두 잔씩만 하겠다

6. 마지막으로, 손님이 돌아가는 禮節이다.

㉡ 거둬진 권작에 취기가 도도하면 제일먼저 큰손님이 **“대접 잘 받았다”**

하고 먼저 일어나십시오.

큰손님 “대접 잘 받았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 이때 자리에 손님들도 따라 일어서십시오.

㉣ 큰손님은 계단으로 내려가고 모두 따라 나가 대문 밖 서쪽에서 차례로
열을 지어 서십시오

㉤ 主人도 내려가서 대문 밖에서 손님에게 읊으로 인사 하십시오.

주인은 “감사하다 안녕히 가십시오”말하십시오

㉥ 큰손님과 여러 손님은 큰소리로 “오늘 **대접 잘 받았다 감사하다**” 하면서 屈身禮를
하고 모두 돌아가십시오

㉦ 여러 손님은 다 같이 “ 오늘 대접 잘 받았다 감사하다”라고 말 하십시오

☞ 다음날 손님은 주인에게 찾아와 감사의 말을 하며, 주인은 여러 집사에게 남은 술을 대접하여 노고를 치하하다.

☞ 향음주례란 것은 향인들이 수시로 모여서 술을 마시는 인데 어진이를 존경하고 노인을 봉양하며, 그 공경은 가정으로 돌아가 효를 다하게 하고, 주인과 손님은 침묵으로 서로 접촉하여 존양하니 다투지 않게 하고, 청결과 공경으로 교만함이 없어지게 하고, 화가 없으니 성인의 道로써 제정한 것이다.

☞ 향음주례는 조선 태조 7년 태조의 향리인 풍배향에 향헌41조를 제정하였다. 효령대군이 이를 증보하여 실행한 것이 최초라 했으며 중종 12년(1517년) 대사헌 조광조, 대사성, 김식등의 진언으로 여씨향약을 시행시켰다는 기록이 있으며 향약과 같이 병행하여 발전되었다고 하다.

☞ 이후 정조21년(1797) 이병모외 7인의 주청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절하는 것을 많이 보셨지요? 우리 전통의식인 통과의례와 의식행사에는 절을 많이 하다. 절은 우리 전통예절의 인사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경을 나타내는 행동이지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끄러운 것이 많다. 하나의 예를 들면 양복이나 양장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갖추어 입고 신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옷을 제대로 알고 갖추어 입는 분은 그리 많지 않다. 내 것은 모르고 남의 것은 잘 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전통인사만이라도 오늘 제대로 배우고 간다면 오늘을 분명 보람 된 하루가 되겠지요. 이 자리에서 애써주신 분들이 절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시고 정확하게 배워 보십시오.

공수 ----- 배례

■ 이것으로서 향음주례시연을 모두 마치겠다. 감사하다.

◎ 사진자료



선비옷 입고 예절수업



단체줄넘기



원어민 선생남도 제기차기에 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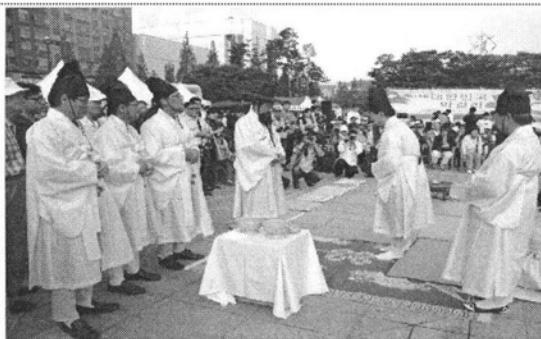
굴렁쇠 놀이



부모님도 투호놀이에 열중



2012 향음주례. 주인과 큰손님



향음주례 여러 손님을 대접하는 예절



향음주례 관람객도 함께 참여

[메모]